

2 0 1 8 . 5 . 6 월 / 통 권 9 9 호

독립정신

권두언_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제언

특집_ 독립운동에 투신한 여성독립운동가 ; 우리는 얼마나 아는가?

지상중계_ 남북협상 70주년 기념 학술회의 ; “1948년 남북협상과 한반도의 미래”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_ 인천 지역의 독립운동

기고_ 순국(殉國)과 헌법(憲法)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8년 4월 27일(금).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1948년 4월 남북협상을 위해 38도선에서 방북 직전 포즈를 취하는 김구와 김신(우), 선우진(좌)

남북협상의 주요 결정은 4김 회담(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과 남북 지도자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4김 회담의 합의와 추인을 거쳐 남북지도자 협의회에서 4월 30일 채택한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공동성명서’에는 ① 외국 군대 즉시 동시 철거, ② 외국군 철수 후에도 내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③ 총선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④ 단선단정 반대와 불인정이라는 4가지 원칙이 담겨져 있다. 이 성명서에 따라 이후 남북에서는 단선단정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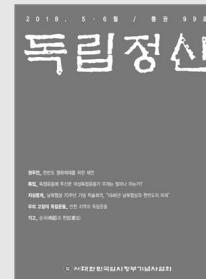


독립정신

2018 5*6

통권 99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독립정신과 민족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곽태원, 김대영, 최석우, 이일선, 안효진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0317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 602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7837@daum.net
홈페이지 : www.kopogo.com
가격 : 5,000원



16



28



44

04 권두언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제언
| 김대영

08 특집
독립운동에 투신한 여성독립운동가 ;
우리는 얼마나 아는가?
| 이윤옥

16 지상중계
남북협상 70주년 기념 학술회의 ;
“1948년 남북협상과 한반도의 미래”
| 최석우

33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
인천 지역의 독립운동
| 양윤모

41 기고
순국(殉國)과 헌법(憲法)
| 조세현

47 100년 편지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께
| 임홍재

50 임정서가
35년(총 3권)
폐치가 최재형
학살, 그 이후의 삶과 정치
| 편집부

57 독립정신 이모저모



58



59



62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제언



김 대 영
(사)대한민국지식중심 이사장

1.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침몰 등으로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북미 간에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몰린 국면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이었다.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역사적으로 ‘종전선언’으로 기억될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선언했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는 끔찍했던 동족상잔의 전쟁 끝에 도달한 휴전협정 이후 65년만에 남북이 전쟁 종료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의 더 큰 의미는 의지를 천명하는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합의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경로로서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비핵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 개최를 적시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방안이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어그러질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돌발사태에 대한 대응방안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국방장관회담과 군사당국자회담을 강조했고, 구체적인 적대행위로서 확산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적시하여 중지할 것을 천명했다. 나아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역사적 선언에 담기에는 일견 지엽적인 문제로 보이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강조한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충분히 배웠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평양회담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평화통일과 남북한 경제교류의 의지가 담겨진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불과 2년 뒤에 발생한 서해교전에 의해 남북 공동선언은 무산되었고, 남북관계는 급속히 경색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가 합의되었다. 그러나 서해평화협력지대는 국내적인 NLL논란, 영토논란으로 추진력을 상실했고, 7년만에 개최된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를 합의했지만 이후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치밀하게 돌발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를 경색시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상 간 직통전화 및 국방장관 간 직통전화, 함정 간 교신 등을 통해 일차적인 진화가 필요하며, 서해평화협력지대 문제는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를 도출해야겠다. 일차적으로 남북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돌발사태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겠다.

3. ‘선언’을 ‘협정’으로 발전시켜야

판문점 선언은 평화협정으로 발전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나게 된다. ‘선언’ 만으로도 의의가 있지만 상호 협상과 토론을 거쳐 합의된 결론으로 도출된 ‘협정’을 통해 서로에게 구속력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는 협상의 과정이 중요하다. 마음만 통하면 된다거나 지향점이 일치하므로 거래가 불필요하다는 순진한 생각으로는 협상이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협정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판문점 선언이 평화협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언에서 밝힌 기초적인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가능한 순서대로 직통전화도 가설하고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도 중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단살포를 범죄시할 필요는 없다. 판문점 선언은 아직 협정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에 대해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여 협상과정에서 지나친 요구를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민족분단을 동서냉전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듯이 한반도 평화에는 국제관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북미회담이 원활히 진행되어 북미 간에 합의점이 도출되어야만 하고, 이후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러시아 등의 양해와 협력을 받아내야 한다. 사전에 이를 위한 다양한 포석과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있다.

일단 협정이 체결되면 절대 깨서는 안 된다. 협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거꾸로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관계는 더욱 악화된다. 이 때문에 협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것으로 범위를 줄여 불신의 소지를 남기지 말아야 하며, 협상의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가와 실무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확실히 준수할 수 있는 내용을 협정에 담아야겠다.

4. 사회적 합의과정을 초석으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에 체결된 남북한 간의 협정이 ‘남북기본합의서’인데,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5차례의 고위급회담이 필요했다. 나름 충분한 준비와 검토 과정을 거쳐 남북 간의 기본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준비한 정도에 비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사회적 합의과정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체제인 북한과 달리 우리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토론과 논쟁의 과정을 거쳐 그 내용을 수렴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당시 국회의 비준과정을 생략한 것도 길게 보지 못한 처사였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1994년에 북미 간에 체결된 제네바협정이 무산된 것도 당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미국 의회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작업과 더불어 미국 의회가 수용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협상하게 되면 합의된 결과를 지켜낼 수 없게 되므로 거꾸로 신뢰가 깨지고 긴장이 고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판문점 공동선언을 어떻게든 평화협정으로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야당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권이 바뀐다고 합의사항을 번복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언제까지나 불가능하게 된다. 혼자 두 걸음 앞서 가는 것보다 함께 반걸음이라도 내딛을 때 비로소 한반도에도 냉전의 먹구름이 걷히고 모두가 편한 마음으로 앞날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운동에 투신한 여성독립운동가 ; 우리는 얼마나 아는가?



이 윤 옥
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나라 없는 몸, 무덤은 있어 무엇 하느냐. 내 죽거든 시신을 불살라 강물에 띄워라.
혼이라도 바다를 떠돌면서 왜적이 망하고 조국이 광복되는 날을 지켜보리라.”**

이 말은 “만주호랑이”로 일컫는 독립투사 일송 김동삼(1878-1937) 선생의 피맺힌 유언이다.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선열들은 이와 같은 굳은 결의로 국내외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조국광복을 위해 뛰었다. 이러한 헌신적인 삶에 대해 국가는 이 분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여 조금이나마 그 공로를 기리고 있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현재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는 분은 14,879분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유관순 열사를 포함하여 298분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상태이다. 숫자에서 보듯이 여성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수는 남성에 견주어 매우 적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적었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해도, 여성독립운동가들은 234분만이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해마다 발굴되어 2018년 3월 현재 298분으로 되었으니 국가로부터 여성독립운동가로 인정받는 작업은 진행형인 셈이다. 더디지만 말이다. 여성이면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숫자도 숫자지만, 문제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294분의 면면을 우리가 알고 있나 하는 점이다.

필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3월 새학기가 되면 언제나 독립운동가들을 남녀로 구분하여 그 이름을 적어보게 하고 있다. 남성독립운동가들은 김구, 안중근, 윤봉길, 박은식 등등 적어도 10여 분을 적지만 여성으로 가면 상황은 돌변한다. 거의 유관순 열사 한 분만 적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돌이켜 보면 필자의 학창시절 역시 독립운동가 가운데 유관순 열사 외에 특별히 여성독립운동가를 배운 기억이 없다.

그러던 중 2000년에 필자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 여성독립운동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해에 필자는 일본 와세다대학에 객원연구원으로 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의 역사에 해박한 일본인으로부터 “유관순 열사 말고 여성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것이다. 아뵐까!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그때 받은 충격으로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다. 순전히 독학이었다.

그러나 이내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는데 여성독립운동가를 다룬 대중서적 한 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여성독립운동가를 다루는 책을 쓰기로 결심하고 덤벼든 것이 <서간도에 들꽃 피다>라는 시집 형태의 책이다. 1권에 스무 분씩의 여성독립운동가를 8권(2018년 현재)에 다뤘으니, 모두 160분을 다룬 셈이다.

단 한 번도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는 수많은 여성독립운동가들이 드넓은 중국 땅에서, 때로는 적지(敵地) 일본에서, 때로는 소련의 블라디보스톡에서,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독립군이 되어 살신성인의 삶을 살다 이승을 떠났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기생의 몸으로, 해녀 출신으로, 의병장으로, 교육자로, 학생의 신분으로 지역과 나이를 초월하여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다 가신 분들이 2018년 3월 현재 294분이라는 이야기지만, 그 면면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은 아직도 오

리무중인 상태다. 너무도 안타깝다.

〈서간도에 들꽃 피다 4권〉 인물 가운데 신의경(1898~1997) 애국지사가 있다. “우리 어머니가 부유한 재산을 남겼더라면 방종했을 것이다. 일찍 어머니를 잃은 우리들은 갖가지 시련을 감내해야 했다. 어머니가 남기신 것은 자립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이었다.”고 술회한 신의경 애국지사는 대한애국부인회에 가담한 죄로 감옥에 잡혀 들어가 1년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어렸을 때부터 병약하게 태어난 신의경 애국지사를 살려내려고 할머니와 어머니는 가마솥에 소뼈를 고아 먹이면서 애지중지 키웠다. 일곱 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여읜 어린소녀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유일한 꿈이자 희망이었다. 정신여학교 교감이었던 어머니의 남다른 사랑으로 어린 신의경은 건강을 회복하고 당시 명문이던 정신여학교를 10회로 졸업하였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이 학교 선생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신의경 애국지사는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결사 조직인 대한민국의애국부인회에 가입했다. 1919년 9월 김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대한애국부인회가 전국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자, 이에 동조하여 신의경 애국지사는 서기 일과 경기도 지부장 일을 도맡아했다.

이 조직은 비밀결사 조직답게 잡혀가더라도 동지의 이름을 팔지 말 것, 회의 내용을 누설치 말 것, 모든 책임을 간부들이 질 것이라는 결의로 항일활동을 펴나갔다. 대한애국부인회 조직은 당시 정신여학교 안에 있었던 관계로 일경의 감시에 늘 조심하였지만, 호시탐탐 노리던 일본경찰의 감시망에 그만 걸려들어, 1919년 11월 28일 신의경 지사를 비롯한 애국부인회 간부 10명이 잡혀가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교감이던 어머니 신마리아 선생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잡혀간 애국부인회 간부는 회장 김마리아(25살), 부회장 이해경(29), 총무부장 황에스터(25살), 서기 신의경(21살), 서기 김영순(24살), 재무부장 장선희(23살), 적십자부장 이정숙(21살), 결사대장 백신영(30살) 등이었다.

이 일로 신의경 애국지사는 1년6개월간 감옥살이를 사는 동안 어머니는 딸이 잡혀간 충격으로 병을 얻어 신의경 애국지사가 출옥하기 3개월 전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금지옥엽으로 기른 딸의 출옥도 못보고 숨져간 어머니, 그 어머니가 숨진 사실

도 모르고 출옥하여 가슴을 처야했던 따님의 이야기는 일제의 침략으로 빚어진 슬픈 가족사의 한 장면이다.

신의경 애국지사처럼 일제 침략에 항거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한 여성독립운동가의 삶이 궁금하여 필자는 그들이 활약한 무대를 찾아 배낭을 메고 떠돌아 다녔다. 여자인중근으로 일컬어지는 남자현 애국지사의 활동지였던 만주지역에서 활약한 김온순, 김죽산, 차경신, 이정숙 애국지사의 삶을 비롯하여, 하와이에서 독립자금을 모아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힘을 보탰던 황마리아, 박신애, 전수산, 심영신, 이희경 애국지사의 발자취도 돌아보았다.

특히 수년전 중국 하얼빈에서 남자현 애국지사의 무덤을 찾아 헤매던 일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남자현(1872~1933) 애국지사는 영남의 석학인 아버지 남정한의 3남매 가운데 막내딸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소학(小學)〉과 〈대학(大學)〉을 배웠으며, 19살에 경북 영양군 석보면 지경동의 의성 김씨 김영주와 혼인하였다.

그러나 남편 김 씨는 결사보국(決死報國) 정신으로 의병에 참여하여 1896년 명성황후 시해 이듬해 유복자를 남기고 순국했다. 그러자 남자현 애국지사는 핏덩어리 유복자 아들과 늙으신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때를 기다리다, 47살 되던 해에 3·1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항일 구국하는 길만이 남편의 원수를 갚는 길임을 깨닫고 1919년 3월 9일 아들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중국 길림성 통화현(通化縣)으로 이주해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에서 활약했다.

이후 남자현 지사는 1925년, 채찬·이청산 등과 함께 일제총독 사이토(齋藤實)를 암살 기도하였으며, 1928년에는 길림에서 김동삼·안창호 외 47명이 중국경찰에 잡히자 감옥까지 따라가서 지성으로 옥바라지를 했다. 한편 만주국 일본전권대사 무토오(武藤信義)를 처단하는 일에 뜻을 모으고 거지로 변장, 권총 1정과 탄환, 폭탄 등을 몸에 숨기고 하얼빈으로 잠입했다. 그러나 하얼빈 교외 정양가(正陽街)에서 미행하던 일본영사관 소속 형사에게 붙잡혀 일본영사관 유치장에 잡혀 들어가고 말았다.

당시 일본 형사들에게 잡혀 유치장에 구속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일이었지만 남자현 애국지사는 개의치 않았다. 일본 형사들로부터 모진 고문을 받으며 15일 동안 단식투쟁 끝에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순국한 남자현 애국지사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라는 유언을 남긴 채 1933년 8월 22일, 60살을 일기로 떠나면 땅 하얼빈에서 숨을 거두었다.

남자현 애국지사가 잡혀가 6개월간 모진 고문을 받았던 하얼빈 시내에 있는 구 일본영사관터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지금은 말끔하게 단장을 마친 화원소학교(花園小學校)가 들어서 있었지만, 남자현 애국지사가 묻혔던 무덤 자리는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당시 하얼빈 외곽의 남강외인(南崗外人) 무덤 자리를 물어 물어 찾아갔지만 무덤은 헐려버리고, 그 대신 그 자리에는 초고층빌딩만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확인해보니 남강외인 무덤은 1958년, 중국의 <대약진운동> 때에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을 알고 옮겨간 자리를 찾아가 보았으나, 그곳 역시 현재는 문화공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무덤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왕봉의(王鳳儀, 하얼빈공전대학 수학과 교수, 81살, 2014년 현재) 씨에게 확인한 결과 무덤이라고 알려준 자리에는 붉은 꽃이 피어있는 화단으로 바뀌어 있을 뿐, 어디에도 무덤의 흔적은 없었다. 광복 후에 중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서둘러 국가 차원에서 찾아내어 작은 기념비라도 세워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비단 이런 일은 만주 하얼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하와이로 건너간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삶 또한 기록되고 알려지지 않기는 매한가지였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재정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백범 김구는 붓을 들어 해외 각지의 동포들에게 도움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나의 통신(하와이 동포들에게 쓴 편지)이 진실성이 있는데서 점차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하와이의 안창호(安昌鎬, 도산 안창호安昌浩와는 다른 인물), 가와이, 현순, 김상호, 이흥기, 임성우, 박종수, 문인화, 조병요, 김현구, 안원규, 황인환, 김운배, 박신애, 심영신 등 제씨가 나와 (임시)정부에 정성을 보내주기 시작했다.”(<백범일지>, 도진순 주해, 돌베개, 320쪽)

백범 김구는 하와이 동포들이 십시일반으로 임시정부에 보내온 독립자금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이름으로 남겼다. 물론 더 많은 동포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독립자금을 보냈지만 위 기록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심영신(1882~1975) 애국지사

다. 심영신 애국지사는 93살로 하와이에서 숨을 거두고 난 뒤 22년이 지난 뒤인 1997년에 가서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독립유공자로 좀 더 일찍 훈장을 수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여성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실정이다. 심영신 애국지사는 이른바 ‘하와이 사진신부’로 건너간 분이다. 심영신 애국지사는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미주 하와이에서 대한인부인회(大韓人婦人會)와 재미한족연합위원회(在美韓族聯合委員會)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국 독립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처럼 하와이에서 만주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조국 광복을 위해 땀 흘린 여성들! 왜 이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일까? 그 원인을 짚어 올라가보면 그간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저조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애국지사의 경우를 들어보자(오히려 애국지사는 올해 93살로, 3월까지 정정하셨는데 지난 3월 17일 급성뇌경색으로 쓰러져, 4월 13일 현재 서울중앙보훈병원에 입원 중이다).

<표1>에서 보듯이 오히려 애국지사 가족은 전원이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나 아버지 오광선 장군이 1962년에 독립장을 받은 이래 어머니와 두 자매는 30여년이 지나서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어머니 정현숙 애국지사는 두 따님들보다 5년 늦게

<표1> 오히려 애국지사 집안의 경우

	이름	훈격	서훈연도	생년월일	활동지역
아버지	오광선	독립장	1962	1896.5.14 ~ 1967.5.3	중국
어머니	정현숙	애족장	1995	1900.3.13 ~ 1992.8.3	중국
언니	오히영	애족장	1990	1924.4.23 ~ 1969.2.17	중국
본인	오히옥	애족장	1990	1926.5. 7 ~ 생존	중국

▲ 광복·분단 70주년 “통일의 길, 한국여성독립운동에서 찾다” 토론회 국회자료(이윤옥 발표), 2015

서훈을 받았다. 오히려 애국지사 가족의 서훈연도야말로 한국 여성독립운동가들의 현주소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1990년도까지 수많은 여성독립운동가들이 독립유공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남성독립운동가들이 독립유공자로 14,851분이 서훈을 받는 동안 여성독립운동가들은 298분밖에 서훈자로 인정받지 못했다(2018년 3월 현재). 숫자도 문제지만 그나마 서훈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른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표2>를 통해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2> 유관순 열사와 동풍신 열사 소개 비교

	유관순 열사 (18세로 순국, 아우내장터 만세운동)	동풍신 열사 (17세로 순국, 화대장터 만세운동)
단행본	전영택 지음 〈순국처녀 유관순전〉 1948 외 단행본 17권	×
논문	〈유관순의 신앙과 삼일운동〉 외 150여 편	2편(수필로 최은희와 전창신의 글이 있음)
교과서	“1948.1.20. 중등국어(문교부) 1학기, 6.순국의 소녀(박계주), 21~29쪽” 외 1948.1.20~2011.3.18회 수록	×
영화, 다큐, 보도 등	2010년 EBS 5부작 외 다수	×
천안시 유관순 열사 기념관	182,169㎡(55,000여평)에 추모관, 기념관, 체육관 등	×
각종 백일장 또는 추모제	다수	×

▲광복·분단 70주년 “통일의 길, 한국여성독립운동에서 찾다” 토론회 국회자료(이윤옥 발표), 2015

필자는 유관순 열사와 비슷한 나이로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로 순국한 동풍신 열사를 <표2>와 같이 비교해 본적이 있다. 이 두 열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편중되었는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본다. 왜냐하면 유관순 열사와 동풍신 열사가 1919년 만세운동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잡혀들어 갔을 때는 각각 수형자 기록카드 1장씩만 존재했지만, 그 뒤 유관순 열사와 동풍신 열사의 인지도는 확연히 달라진다. 물론 유관순 열사는 만고의 독립투사이다.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동풍신 열사를 비롯한 나머지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과 선양도 하루빨리 뒤따라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여성들이 독립운동으로 뛰어든 분야를 나눈다면 광복군(신정숙 외 29분), 국내항일(강주룡 외 64분), 임시정부(이국영 외 12분), 중국 방면(정정화 외 19분), 3·1운동(유관순 외 91분), 미주방면(심영신 외 19분), 만주방면(남자현 외 9분), 학생운동(김귀선 외 23분), 의열투쟁(이혜수), 의병(윤희순, 양방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019년 내년은 1919년으로부터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여성독립운동가들을 밝은 해 아래로 불러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지하에 계신 여성독립운동가들을 뵈면 면목이 없는 후손이 되고 말 것이다. 그 첫째는 관심이며, 둘째도 관심이다. 알리지 않고 어찌 자라나는 후손들이 그 숭고한 이름을 기억하겠는가! 

남북협상 70주년 기념 학술회의 ; “1948년 남북협상과 한반도의 미래”

정리 : 최 석 우
본지 편집위원

- * 일시 : 2018년 4월 17일(화) 13~17시
-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 주최 · 주관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 우사김규식연구회
- * 후원 : 국가보훈처 · 광복회

지난 4월 17일,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우사김규식연구회 주최 · 주관으로 남북협상 70주년 기념 학술회의 ‘1948년 남북협상과 한반도의 미래’가 열렸다. 남북정상회담을 열을 앞두고 마련된 이날 학술회의는 “오늘날 우리 조국이 안고 있는 비극의 뿌리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기 위한 첫 매듭이 되기를 기대하는(김자동 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개회사)” 뜻깊은 자리였다. <독립정신>이 주제 발표와 토론 그리고 행사 이모저모를 지면에 옮겼다.



<1>

김구와 김규식의 진정성이 북측 태도 변화 이끌어내
70년 전 남북협상에서 분단체제 극복 교훈 얻어야

제1주제 ; 북한에서 보는 남북협상과 남북관계 개선 전망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2018년 개최될 남북정상 회담은 1948년의 남북협상과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다르지만, 통일된 국가를 수립하려는 목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평화체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1948년의 경험, 특히 북한의 입장을 살펴봐야 한다.

당시 북측의 전략은 ‘민주기지론’으로 압축된다. 북측은 임시인민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

문재인 대통령 축하 전문

백범과 우사의 길은
민족통일을 향한 이정표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구, 김규식 선생 일행이 통일조국의 염원을 안고 38선을 건너 남북협상에 임한 지 70년이 흘렀습니다. 두 분의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각자의 길을 갔고, 민족 분단은 가슴 아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분께서 걸어가신 길은 지금도 민족통일을 향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 등 그간의 소중한 성과들도 두 분이 놓으신 정신적 토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열흘 후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여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더 큰 기쁨과 축하 속에 맞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들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학술회의의 성공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8년 4월 17일
대통령 문재인

개혁을 비롯한 ‘민주개혁’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미소공위에서 관철시킴으로써 건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남측 우파단체들의 강력한 반탁운동의 여파,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인해 미소공위가 결렬 조짐을 보이면서, 이 전략은 수정됐다. 분단이 기정사실화 될 상황에 대비해, 헌법 초안 마련, ‘조선인민군’ 창건, 남북의 중도좌파세력과 통일전선 구축을 시도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북측은 반탁의 영수였던 김구와 임시정부 인사들을 격렬히 비난했다.

미소공위가 결렬되고, 유엔총회 정치위원회에서 남북 대표가 참석할 때까지 토의를 보류하자는 소련의 제안이 부결되자(1947.10.30), 김일성은 “남북조선의 민주력량에 의거하여 우리 인민 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을 천명했다(1947.11.3).

김일성이 언급한 “남북조선의 민주력량”에 남측 우파 민족주의자들은 들어 있지 않았다. 이는 통일정부 수립에서 이들을 배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했다. 미국은 유엔을 움직였고, 유엔총회에서 남북 총선거 및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설치안이 가결됐다(1947.11.14). 분단으로 가는 막다른 길이었다.

학술대회 식전 행사로, 내·외빈의 축사가 마련되었다. 지면으로 옮겨본다.

통일국가 건설의 실마리 풀기를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첫 과업이자 소망은 통일국가 건설이었습니다. 그 같은 꿈은 외세와 단독정부 지지세력에 의해 무참히 깨졌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분단을 막기 위해 백범과 우사가 기울인 노력은 참으로 빛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굴의 애국지사들의 이런 노력은 지금 역사에서 잊혀져 있습니다. 해방공간에서 일어난 이런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은 통일국가 건설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기 위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범과 우사 노선의 의의, 널리 알려야



김재경
우사김규식연구회
회장

저희가 이번 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당시 한반도 정세는 몹시 절박했고, 평창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지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 우사김규식연구회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는 힘을 합쳐 70년 전의 남북협상을 재조명하고 백범과 우사 등의 고견과 활동이 오늘의 한반도에 대결과 전쟁 대신에 화해와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데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를 밝혀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벼랑 끝 상황에서 김구와 김규식이 먼저 남북지도자회담을 제안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미소 양군 철수, 남북요인회담, 총선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에 의견 일치를 보았고, 남북협상을 제의하는 두 사람의 서한이 북에 전달됐다(1948.2.16).

남측에서 단정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으므로, 소련과 김일성은 이 제안을 무시할 수 없었다. 문제는 북측이 인민위원회의 정권 형태와 민주개혁의 전국적 확산에 기반하는 정부 수립, 즉 반제반봉건혁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이 전략 실행에 김구와 김규식의 동의를 얻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북측은 김구와 김규식의 서한에 아무런 답신을 았다가, 평양방송을 통해 남북연석회의를 주장했다(1948.3.25). 남북지도자회담이 아닌 남북연석회의는, 김구와 김규식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통일전선 구축 전략의 일환이었다.

김구와 김규식은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김규식은 북측에 △여하한 형태의 독재정치 배격 △사유재산제도 승인 △전국적 총선거를 통한 통일중앙정부 수립 △외국에 군사기지 제공 불허 등 5개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이를 공개했다(1948.4.15).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안한 이유는, 무엇보다 단정은 전쟁으로 치달을 것이기 때

70년만에 다가온 천우신조의 기회



박유철
광복회 회장

최초의 남북협상이라 할 수 있는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1948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지 꼭 70년이 흘렀습니다. 천우신조로 다시 한 번 우리 민족 앞에 다가온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이번만은 남북한 당국이 진실된 마음으로 국제 공조 속에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역사를 펼쳐 남북이 공동 번영하는 시대를 중단 없이 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어릴 적 영웅이 우사 김규식 선생



한완상
남북정상회담 자문
위원·전 부총리

어릴 적 영웅이 두 분 계셨습니다. 한 분은 몽양 여운형 선생, 부친께서 몽양의 연설을 듣고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또 한 분은 우사 김규식 선생입니다. (해방정국에서) 우사를 직접 모신, 은사 이상백 선생님께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규식 선생은 제가 다닌 새문안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70년 전 남북협상의 의의를 제대로 알리고, 남북정상회담에 공존과 평화의 지혜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세계 평화의 대계기가 되는, 세계사적인 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문이었다. 남북협상에 대한 북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이들의 진정성이었다. 두 사람은 남북협상이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동족상잔의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부동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평양에 도착해서도 남북연석회의에는 소극적이었고, 두 사람의 요구로 남북지도자회담이 개최되어, 4개 항의 결정서가 채택됐다(1948.4.30). “외국 군대 철수 후 제정당 공동명의로 전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민주주의 임시정부 즉시 수립, 총선에 의한 조선 입법기관 선거 후 조선헌법 제정하고 통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통일정부 수립방안이다.

이처럼 1948년 남북협상 과정은 김구와 김규식의 노력으로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성사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만약 이들이 북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거나, 북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면, 역사적인 남북대화는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경험이야말로, 2018년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역사적 맥락이다.

1948년 남북협상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으나, 이후 남북의 상호 인정과 공존공영의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이 걸어야 할 이정표가 되었다. 이는 김구와 김규식의 공로다. 1948년 남북협상은 북측의 혁명전략을 남측의 진정성과 역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실제 변화시켰던 가장 대표적이고 가시적인 사례이다.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는 1980년대 이후 냉전 해체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세계사적 변화의 마침표가 될 수 있다. 70년 전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통일정부 수립의 마지막 시도마저 성공시키지 못했던 아픈 역사를 넘어, 이제는 동북아 평화질서의 선도자가 될 기회가 주어졌다. 그 기회의 성공 여부는 이제 우리 손에 달렸다.

역사 회고에서 통일 도정 여는 계기로 나아가야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여운형 선생은 민족통일 전선에 진력했습니다. 미소 공위 진행 중에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남북협상의 진행과정을 복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일 도정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뜻을 펴려면 희생이 있어야



함세웅 신부
안중근의사기념
사업회 이사장

신학적으로 보자면, “뜻을 펴려면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하듯이, 김구·김규식 두분의 희생은 우리 역사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값진 자양분입니다. 두 분이 라는 큰 나무 밑에서 8천만 겨레가 홍익인간을 실천하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2〉

한국 사상의 특질은 대화적 포용적 융합적 해방정국에서 중도노선의 가치 재조명돼야

제2주제 ; 1948년 남북협상의 사상적 배경에 관한 시론
이상수(언론인)

한국 사상의 굵은 흐름 안에는, 분명히 대화적, 포용적, 융합적이라고나 해야 할 특질 또한 복류천처럼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상사에서 교조적 성향이 강해지는 건, 주자학, 예수교, 맑스주의가 전래해오면서 생긴 새로운 경향이다. 이들은 각각 정통론(正統論), 유일신론, 과학적 사회주의 등을 내세우며 자신과 다른 신념체계를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기억투쟁의 계기로 삼아야



이해동 목사

민주공화정의 뿌리는 3·1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공화정의 국체를 수립한 게 바로 임시정부입니다. 이 뿌리를 기억하는 작업이 상당히 해이해져 있지 않나, 걱정합니다. 교회조직이 오래 유지되는 비결을 ‘기억투쟁’이라고들 합니다. 구약은 출애굽, 신약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기억투쟁의 계기로 삼아, 우리 민족이 보전할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축전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남북협상마저 없었으면 무슨 치욕이었을까



이부영
동양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분단의 책임은 외세가 아닌 우리 민족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70년 전 분단을 저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남북협상은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만약 남북협상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민족이 되었을 것이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남북협상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에 큰 역사적 교훈을 줄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단(異端)’ 이거나 ‘오류’ 혹은 ‘비과학적’ 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사상사에서 이런 경향은 되레 예외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두 문화가 교섭하는 방식은 ‘전쟁’ 아니면 ‘대화’ 였다. 가령 주자학의 정통론을 고수하면 ‘오랑캐’ 인 청나라와 싸우지 않을 수 없어 ‘북벌론(北伐論)’ 이라는 허황한 주장에 빠져든다. 한국 사상의 전통 가운데 대화적 포용적 융합적 특질이 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런 특질을 발굴하고 이어갈 필요가 있다. 교조적이고 근본주의적인 문화보다는 대화적 포용적 융합적 문화가 더 성숙한 것이기 때문이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은 해방 이후 남북 주요 지도자들이 망라된 최초의 대화였다. 이런 대화는 1945년에 절실했다. 1948년의 남북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그런데 왜 해방 이후 거의 3년이나 흐른 시점에서 남북 지도자들은 대화에 나섰을까. 이 대화 시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우리는 일단 해방 정국에서 줄기차게 좌우의 협력과 대화를 강조한 중도노선의 인물들을 평가해보려고 한다. 이들의 사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도노선의 움직임 속에 대화와 포용과 융합이라는 한국 사상의 특질이 작용하고 있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한다. 이런 검토는 1953년 정전협정 체제를 영구적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실천에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운형(1886~1947)

그는 과장된 선언보다 자기 역량에 맞는 실천을 중시한 사람이었다. 여운형은 모든 항일세력의 대동단결을 통한 자주국가의 수립을 추구했으며, 한 가지 사상에만 매달리지 않고 유연했다. “기독교인들은 여운형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였고, 사회주의자들은 그를 사회주의자로 보았다”는 평이 있다. 그는 이처럼 한 가지 사상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사상을 융합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인물이었다. 여운형은 실사구시와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와 좌우합작위원회 등 민족통일전선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

김규식(1881~1950)

여운형이 좌파 중도노선을 걸었다면, 김규식은 우파 중도노선을 걸었다. 그는 국제 정세를 객관적으로 읽고 판단하는 통찰력이 뛰어났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민족 내부 세력은 물론 국제적 협력까지 최대한 동원하고자 했다. “자기를 정복하라”는 김규식의 말은 자기중심주의를 넘어서라는 말이다. 그가 평생 민족통일전선과 좌우합작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자기 극복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덕분이다. 김규식은 기독교의 배경을 지녔지만, 여운형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가지 사상에만 매달린 인물은 아니었다. 그의 이런 융합적 기질이 그를 민족통일전선과 해방 후 좌우합작운동, 그리고 남북협상과 통일운동의 중심인물로 만들었다.

김구(1876~1949)

김구는 해방 정국에서 반탁투쟁을 주도하면서 이 운동이 민족의 자주성을 열렬히 고양시킬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해방 정국에서 자주적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의 ‘의심과 염려(疑慮)’ 를 적극 해소해 주어야 한다”는 홍명희 등 중도세력의 섬세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도달하지 못했다.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던 그가 반탁운동을 주도함으로써,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이던 해방 초기의 중요한 시기를 허비해버렸다. 그가 ‘임정 법통론’ 을 고수하는 동안 이승만은 반탁의 그늘 아래 남쪽 단독정부 구성 준비를 진행해갔고, 김일성은 ‘민주기지’ 의 논리를 내세워 북쪽의 단독정부를 형성해갔다.

김구는 남쪽의 단독정부 수립이 확실히 되던 1947년 말과 1948년 초에야 남북협상으로 눈을 돌렸다. 그의 이 선회에 대해 연구자들은 대체로 너무 늦은 것이라고 비판한다. 너무 늦은 것도 사실이고, 정치적 고려도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결에서 대화로 자신의 정치노선을 바로잡은 점에 대해서는 평가해주어야 마땅하다. 나는 레토릭으로 김구를 평가하지 말고, 일흔두 살에 방향을 선회한 용기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우리 역사에서 해방 정국의 시기만큼 다양한 사상과 세력이 등장한 적도 없고, 이 시기만큼 각 정파들이 격렬하게 투쟁하고 갈등하던 시기도 없었을 것이다. 남북협상은 해방 정국이 분단과 전쟁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기 직전에 이루어졌다. 비록 혼란과 오인과 실수와 회한과 한탄으로 얼룩진 해방 정국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자주’ 와 ‘통일’ 을 유지하기 위해 사고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김규식, 여운형, 백남운, 홍명희 등 중도노선의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이 비록 (특히 여운형의 암살 이후에는) 해방 정국을 주도할 정도의 역량과 영향력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거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의 노력이 비록 당대를 주도하지는 못 했더라도, 그냥 실패와 좌절로 그치지는 않는다. 이들의 고투는 앞으로도 계속 값진 것으로 평가받을 것이고, 이들의 지혜와 성찰에 귀 기울이는 이

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며, 중국에 이들이 고투해서 찾아간 길은 대중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상의 특질이 대화적 포용적 융합적이라는 데에서 이야기를 출발했다. 해방정국에서 최선의 노선을 실천하기 위해 고민했던 인물들의 특징 또한 대화적 포용적 융합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김규식이 조선의 민주주의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조선화를 말할 때는, 우리 선배들이 석가의 조선, 예수의 조선, 맑스의 조선을 만드는 대신, 조선의 석가, 조선의 예수, 조선의 맑스를 만들기 위해 고투했음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3〉

남북협상은 성공 가능성 없던 이상론 소련당국, 백범의 이름과 진정성 악용

제3주제 ; 남북협상의 역사적 재평가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구와 대한민국 건국 사이에는 ‘남북협상’이라는 사건이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과 김구를 연관지어볼 때 남북협상이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김구·김규식 양인이 주도한 남북협상이라는 정치행위가 ‘대한민국 나라세우기’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탐구하려는 시도이다.

이 사건에 대한 평가는 당시 정파에 따라 사뭇 달랐으며, 지금도 입장차가 여전하다. 이승만-한민당의 입장을 옹호하는 인사들은 남북협상이 초대받은 잔치에 참석해 들러리만 선 것으로 평가했다. 연석회의와 그 직후 ‘4김 회담(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 모두 북한 사회주의정권의 정통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련당국이 백범의 이름과 진정성을 악용한 것이었다.

반면 이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남북협상 운동이 비록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후 통일운동의 지침을 제공했으며, 한민족의 통일의지를 발현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시 김구 수행비서였던 김우전 선생은 백범이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갓을 뿐 대한민국을 팔아먹거나 김일성에 놀아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엔총회가 미소 점령군 관할구역에서 유엔임시위원단 감시 하에 각각 선거를 치르자고 제안한 미국의 결의안을 다수결로 채택하자(1947.11.14), 김구가 이끄는 한독당이 주축이 된 ‘각정당협의회’는 미소 양군의 철퇴를 요구하며, 남북정당대표회의를 구성하여 통일정부를 세우라고 주장했다(1947.11.17).

소련의 거부로 남한에서만 선거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유포되던 1947년 11월 24일, 김구는 “국련 결정의 소련측 거부로 인한 남한만의 선거는 국토를 양분하는 비극”이라며, 유엔감시하의 남한만의 선거를 처음으로 반대하기 시작했다. 김구는 단선을 반대한 이후에도 유엔이 감시하는 남북총선거라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남한만의 총선거라도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이승만과는 처음부터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1948년 1월 8일 유엔한국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고, 소련의 입경 거부 직후 열린 1월 26일의 청문회에서, 김구는 외국 군대의 즉시 철수와 남한만의 선거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표명했다. 유엔한위에 보낸 자신의 의견서에서 “미소 양군이 철퇴하는 대로 즉시 평화로운 국면 위에서 남북지도자회의를 소집해서 조국의 완전 독립과 영원 해방의 목적을 관철할 수 있는 공동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렇듯 ‘남북협상론’을 먼저 공식화한 것은 김규식이 아닌 김구였다.

한편, 1948년 1월 27일 유엔한위와의 협의를 마친 후 발표한 담화에서 김규식도 남한에서 남북요인회담을 남한에서 개최할 것을 주장했다. 이 제안에 대해 유엔한위측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인도의 메논 의장을 비롯해 대만대표 유어만(劉馭萬), 케나다 대표 페터슨 등이 김규식과 접촉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청취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2월 29일 메논 의장에게 남북요인회담 앞선을 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능지역 총선’을 추진하려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해 남북협상안에 대한 유엔한위의 관심은 줄어들게 되었다.

남북협상은 1946~1947년 기간, 김규식-여운형이 주도한 좌우합작의 맥을 잇는 통일운동이었다. 김규식은 두 운동에 모두 참여했으며, 김구는 좌우합작에는 방관하다가 1948년 김규식이 초기에 주도했던 남북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좌우합작위원회는 미국이 그 설립을 주도하고 후원한 기구였다는 점에서 외세에 의해 이용당한 측면이 있었으며, 남북협상 특히 연석회의는 소련이 후원했다는 점에서 역시 외세에 의해 규정된 측면이 있었다. 외세에 의해 규정된 해방정국의 정치사가 가지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김구와 김규식 등이 주도한 남북협상은 결과에서는 실패했지만, 평화적인 독립-통일의 정신을 역사에 남기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다. 도진순 교수는 남북협상이 비록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민족분열의 긴박한 정세에 대처해 외세에 의한 분단을 반대하고 민족자주성

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사상-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단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분단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북협상을 통해 북에 이용당했다는 결과론적 평가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 뻔한 운동을 왜 추진했느냐는 비판도 있다. 남북협상론과 통일지상주의는 심금을 울리는 고귀한 감정 표현이며 최선의 방책이기는 했지만, 이미 전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상론이며, 낭만적인 관념이고 감정에 치우친 '소망' 일 뿐이었다.

<4>

남북협상은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첫 번째 기회였다 김규식의 현실주의, 지금도 살아 있어

제4주제 ;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 시도이다(버취 문서를 통해 본 김규식)
박태균(서울대 교수)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정하고 미군정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연락하는 역할을 맡았던 버취는 김규식과 가장 많이 만났던 미군정 요원이었다. 한국에서 떠난 지 25년이 지난 후 60이 넘는 나이에 버취가 쓴 편지에서, 김규식은 '안정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애국자'로 표현되었다.



김규식은, 김구와는 달리,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반대했던 반탁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 내용과 실제 결정안에 합의했던 미국과 소련의 의도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합리적이기에 즉흥적이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정치인이었다.

현재 우리에게도 반탁운동만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했던 사건은 3상 결정안이 발표된 후 열흘이 지난 뒤에 나왔던 이른바 '4당 캄파'였다. 1946년 1월 보수 우익의 한국민주당과 한국국민당, 진보 좌익의 조선인민당과 조선공산당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4당 대표들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대해서 지지한다', '그러나 3항에 언급되어 있는 신탁통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것과 함께 '암살'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해방 후 최초로 이루어졌던 실질적 좌우합작이었다. 이들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강대국들의 어떠한 이해관계 속에서 도출된 것인가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에 대해 한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좌우합작의 합의는 임시정부의 총파업 명령(1945.12.30)과 조선공산당의 찬탁 선회(1946.1.3)로 커튼에 가려졌다.

이승만과 김구는 이 합의가 깨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합의가 깨졌다는 것은 미소의 분할 점령 후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김규식은 4당 간의 합의가 옳으며, 결국 한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미소공위 활동에 적극 참여했던 것이다.

1946년 6월 20일, 하지 사령관은 이승만, 김구, 그리고 김규식와 만나, 이승만과 김구에 게 전면에 나서지 말고 김규식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6월 25일에는 러취 군정장관이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김규식이 중심이 되는 조직(좌우합작위원회로 추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 사령관은 위원회에 3백만엔의 지원금 제공을 지시했다.

당시 미군정의 공식 입장은 과도입법의원과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조선민주임시정부를 수립하며, 여기에 북한의 정치인들을 통합하여 한국 정부를 수립하고 한국으로부터 빠르게 철수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핵심은 김규식이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의 최정점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남조선과도정부 수반으로 임명하려는 미군정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만 계열이 이미 경찰과 공무원을 장악하고 있고, 테러집단들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버취 문서군에 있는 미군정의 지방 조사 자료들은 주로 1947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자료들에는 이미 지방의 대부분이 이승만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사실은 김구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규식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여운형의 죽음이었다. 그의 죽음 이후, 김규식은 하지에게 편지를 보내 "1947년 12월 6일 좌우합작위원회가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썼다. 그리고 이승만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갔다. 그에게 있어서 남북협상은 마지막 기회가 아니고 첫 번째 기회였다. 김규식은 남북 지도자회담이 성공할 것이며, 김구 역

시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통일 정부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공히 분단된 단독정부 수립을 연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김규식은 남북에서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 궁극적으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는 김구 역시 예견하고 있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죽더라도 ‘한국에서 죽고 싶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다.

해방 직후 미군정기 김규식의 정치적 행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학자 출신이면서 자신의 친위대를 갖고 있지 못한 김규식은 미군정기 내내 미군정에 의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지금까지 김규식에 대한 평가의 주를 이루며, 다른 한편으로 김규식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던 주요한 이유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다이나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미군정 하에서의 그의 활동이나 1948년 김규식의 북한 방문은 이상주의자로서 통일을 추구한 행보와 방문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그의 이념과 주장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가 얘기한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라고 하는 점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후 한국 현대사에서 계속해서 남아 있는 울림이 될 것이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처럼 ‘외세의 개입이 없이 시작된 첫 번째 시도’라는 점은 해방정국에서 그의 행보가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단정이 차선택 · 전쟁 못 막지 않았나? 남북협상 진정성, 제대로 평가해야

‘남북협상의 역사적 재평가(이완범)’에 대한 토론
장원석(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학예연구사)

1. 발표자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협상을 평가하고 있다.
2. 남북협상론과 단정수립론의 대립과 관련, 발표자는 “지금 식으로 하면 여야 간의 노선 차이(포용정책과 상호주의의 대립)에 불과한데 ... 이런 대립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남한 정치가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고 건강했다는 증거”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 정국의 남한 정치는 신탁통치안을 둘러싼 극심한 좌우대립을 거치면 테러와 암살이 난무했다. 미군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7~8월 두 달간 총 196건의 우익 테러로 53명의 사망자와 54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동양적 형태의 내전’으로 묘사될 정도였다. 발표자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으며, 자칫 해방정국에 대한 오도된 역사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
3. 발표자는 단정수립론에 대해서 “이승만-한민당의 선정부 수립-후통일론은 국제정치적 현실을 고려한 차선택”이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남북협상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상론이며 낭만적인 관념이고 감정에 치우친 ‘소망’ 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남북협상 추진 세력들은 당시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 때 남북협상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승만, 한민당이 추진하는 단독정부 노선을 따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동족상잔의 전쟁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6〉

김규식과 함께 하는 한반도 주민의 꿈 지금은 정부도 국민도 힘이 있다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 시도이다(박태균)’에 대한 토론
김숙임(사단법인 조각보 공동대표, 전 6·15남측여성본부 공동대표)

1. 이승만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후 냉전구도 속에서 가능했다. 친일지주, 자본가 세력, 해방 이후 숨죽여있던 세력들이 이승만과 결탁. 친일청산이 안 되는 원인과 결과가 맞물려 정치적인 힘을 얻는 과정이었다.
2. 김규식은 해방공간 당시 남북관계 현실에서 분단을 막기 위해 좌우합작, 남북협상을 위해 합리적이고 치열한 정치행보를 한 사람이다. 자신의 이해를 위한 강력한 돌파력을 지닌 강한 리더십보다 정치적 영향력은 없지만 역사를 위해 합리적이고 현실 가능한 접근과 대안을 선택했다. 남북협상의 첫 번째를 연 사람, 분단 정부의 수립을 막기 위해 우리 민족끼리, 외세 없이 자주적으로, 계속되기를 바란 사람, 김규식의 첫 번째가 있었기에 70년 후 지금이 있다.
3. 남북협상 시기 이승만은 이 회담이 실패하면 단독선거를 지지해야 할 것이라 했지만, 김규식 이것은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첫 번째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는 남북 당사자의 책임과 긴밀한 협력으로 끝까지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6·15회담 전에 그러했듯이 미국과 주변국들을 설득하면서도 끝까지 가야 한다. 남북대화는 1948년 4월 이후 크게 대결, 합의, 공백, 접촉, 제재의 시대를 지나왔다. 이제 어떠한 남북협상의 시대를 열 것인가. 우리의 통일은 협력적 공존으로 가야 한다. 단계적으로 조건을 만들어가며 교류하며 인프라를 만들며, 신뢰를 쌓으며, 상호 긍정적 조

건을 만들면서, 긴 협상의 과정이 필요하다.

4. 6·15선언 이후 전개된 통일운동, 남북 민간교류 속에서도 우리 안의 분단을 경험한다. 남남과 남북 사이에서. 오랜 국가폭력, 구조적인 폭력의 결과가 인간관계 내부로 깊이 내재되어 있다. 이념화되고 경직되고 분리적이다. 다양한 정파를 넘어 서로를 아우르며 협상하는 자가 되어야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 남남간의 좌우합작, 남북간의 남북협상, 지금도 요청되는 중요한 일이다.
5. 한국정부의 남북 대미 북미 협상과정에서의 정치외교능력이 기대된다. 당시에 비해 국민의 성숙도도 높다. 6·15 이후 10년의 남북 민간교류의 경험으로 통일의 주체, 대화의 주역으로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 촛불혁명을 만든 성숙한 국민의 힘과 영향력은 협상의 대상자(북한, 미국 등)에게 무시할 수 없는 힘이다. 국제정세도 당시보다 유리하다. 핵문제도 한반도와 세계평화 의제로 탈바꿈, 변환, 역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6. 김규식이 노력한 합리적이고 온건한 통일정부 수립노선은 남북 화해협력의 씨앗이 되고, 우리 민족이 가야 할 현실적인 방향과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의 남남간의 갈등과 남북간의 대결을 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김규식의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이 여전히 중요하다.
7. 정부는 민간을 주체로 세워, 통일과정에서 민간공공외교를 중시해야 한다. 평화적 관점에서 협상을 통한 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면 극단주의적인 정파를 통합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남북 간 정부의 부족함도 함께 보완하며 가야 한다. 이는 정부의 의지와 능력만으로 불가능하다. 김규식 당시보다 지금은 어떤 권력에도 치환되지 않는, 어떤 정파도 넘는 건강한 시민사회가 존재한다. 가장 소외될 수 있는 여성도 함께 해야 한다. 한반도 무력갈등에서 여성의 피해를 예방하고 평등한 참여를 국내외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다(유엔안보리 1325).

인천 지역의 독립운동



양 윤 모
인하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

1

1919년 3월 1일,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전국적으로 전 계층의 참여하에 독립을 목표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독립운동가이며 역사가인 백암 박은식 선생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치열한 운동이었다고 전하면서, 피압박 민족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선생은 조선 독립의 희망을 3·1운동에서 보았으며, 세계의 다른 피압박 민족에게 크나 큰 자극을 준 운동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선생의 불후의 명저 『韓國獨立運動之血史』는 그 증언집이라 하겠다.

이에 의하면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경기도 내에만 25개 지역에서 303회에 걸쳐 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났으며, 참가 인원은 68,100명, 이 중 사망자는 1,409명, 부상자는 2,677명, 체포자는 4,220명에 달하였다. 전국적으로 볼 때, 길게는 3개월여 동안 전개된 3·1운동은 인천 지역에서도 많은 민중의 참여하에 전개되었다. 특히 인천은 일본 동경에서 있었던 2·

학술회의를 빛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학술회의 좌장

심지연(경남대 명예교수)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박태균(서울대 교수)

장원석(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학예연구사)

김숙임((사)조각보 공동대표)

- 발표자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이상수(前 한겨레 기자)

- 토론자

이승환(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한승동(한겨레 기자)

- 사회

손범수(방송인)

- 내빈	김상희	김재경	김후남	백준우	유인태	이용위	임진택	조수종
강남희	김선현	김재광	김홍수	서규승	육철희	이용주	임진홍	조정애
강란숙	김세균	김재철	김희덕	서승	윤경로	이원복	임한경	조준환
고용진	김수옥	김정오	김희선	서정문	윤영전	이원표	임홍재	조회환
고현석	김숙임	김정환	남기형	서중석	윤정경	이원호	장성현	주금숙
곽병찬	김숙정	김주원	남만우	서현성	윤한옥	이유경	장세윤	차영조
곽태원	김승국	김주익	노용우	석중진	윤홍성	이일선	장은기	최권행
구병일	김승균	김주일	도재영	성용겸	이강수	이자훈	전병선	최동성
구중서	김승준	김주현	동성수	성원용	이경숙	이재명	전봉성	최범준
권오창	김시완	김주호	류시경	성화윤	이계환	이재장	전재호	최석우
권춘자	김신희	김지선	마기철	손장선	이광욱	이정숙	전창일	최수산나
권태연	김영덕	김지엽	민향선	송광석	이광찬	이종찬	전태국	최영봉
기진차	김영모	김지용	박상균	송성주	이금희	이준식	정병문	최용호
김갑수	김영민	김진수	박상현	송우경	이기자	이진우	정성태	최윤기
김광재	김영주	김진원	박소원	송재홍	이기후	이창복	정원영	최이남
김교신	김영훈	김진중	박영녀	송주섭	이동길	이철	정윤심	최인국
김기	김영희	김진현	박영순	신복룡	이동섭	이판암	정정옥	한완상
김년수	김용수	김창영	박용규	신희범	이동진	이해동	정종화	한정숙
김대식	김우현	김태동	박용현	심재경	이만열	이현욱	정진향	함세웅
김대현	김원식	김태영	박재민	심재권	이명선	이현우	정해구	허은경
김덕영	김유삼	김한승	박정음	안효진	이미자	이현주	정현순	홍소연
김도식	김유신	김현하	박중기	양성모	이부영	이홍자	정현주	황민재
김동수	김유찬	김혁	박현수	오광택	이선민	이홍중	정호경	황원섭
김미현	김윤영	김형석	배동인	오성용	이성우	이화인	정호성	황인자
김삼웅	김익홍	김혜련	배문호	오의교	이숙경	임경창	조기형	황진하
김상남	김임용	김환수	배해원	원행	이승현	임대택	조선희	
김상용	김자동	김효순	백명숙	유대길	이영준	임재경	조세현	



8독립선언의 경과가 국내로 전달되는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2

인천 지역은 3월 6일 현재의 창영초등학교(당시는 인천공립보통학교)와 인천공립상업학교 학생들이 동맹휴학에 들어가면서 독립만세운동이 개시되었다. 이들은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가행진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공립보통학교 교직원들은 이와 같은 집단적인 행동을 저지하는 한편, 즉시 현지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경찰서에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탄압에도 시위운동은 그칠 줄을 몰랐다. 이어 3월 9일에는 기독교 신자와 학생·청년 30여 명은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강제해산 당하였다.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경인가도에 운집한 50여 명도 만세시위에 나섰다. 일본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1명을 체포하고 나머지를 해산시켰다. 이후 인천부내 만세운동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식민당국자는 인천지역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철통’ 같은 경계망을 펼쳤다. 일본인들 동요는 식민 지배체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친일관변단체인 인천부협의회, 번영회 등을 동원하여 주민들 자제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상인들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점 철시라는 형태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3월 27일경을 전후하여 부내 곳곳에 비밀히 『조선독립신문』 등이 배포되었다. 주요 내용은 ‘만세를 부르라’와 ‘철시하라’는 등이었다. 수면하에 침잠된 침묵은 3월 하순경 상가철시투쟁으로 이어졌다. 각지에서 벌어진 만세시위운동 소식은 상인층을 크게 고무시키는 요인이나 마찬가지로였다. 인근 강화도와 시흥군 만세시위운동은 억압적이고 폭압적인 식민지배체제에 대한 저항감을 북돋워주었다. 일제의 갖은 회유와 협박에도 상가철시투쟁은 지속되었다.

내리에서 잡화상을 운영하는 김삼수(19세)와 외리의 객주집 사환인 임갑득(16세) 등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상인들이 상점을 폐쇄하는 등의 항쟁을 하고 있음에도 인천 내에서는 아무도 상점 철시 등의 움직임이 없음을 유감으로 여겨 격문을 작성 배포하였다. 4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들은 3차에 걸쳐 ‘인천의 체면상 점포를 닫지 않으면 최후 수단을 취하겠다’, ‘인천에 있는 상업가가 폐점하지 않으면 인천 시가는 초토화할 것이다’, ‘속히 폐점

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을 취할 것이다’ 등의 협박문을 인천 외리의 이복현 등 16개 점포와 동부 내리 장지섭 외 수명의 점포에 투입하여 상점 철수와 폐점을 강요하다가 체포되었다. 당연히 일제에 의한 인천 지역의 경계는 그만큼 삼엄하게 전개되었다.

4월 1일 외리에서는 20여 명 시위대가 만세를 부르다가 주동자는 체포되었다. 인천부윤은 폐점 중인 한국인 상인을 부청에 소집하였다. 이들 협박에 의하여 4월 2일을 기하여 모두 개점할 것을 상인들은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상인들은 “민족적인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폐점해야 하며, 만약 개점할 경우에는 인천 시가 전체를 초토할 것”임을 통첩하는 경고문을 발송하였다. 소극적인 상가철시투쟁은 상인층 유대강화와 민족적인 자존심을 지키는 밑바탕이었다. 불완전한 집계에 따르면, 시위회수는 8회, 참여한 인원은 9,000여 명, 투옥자 15명 등이었다. 이처럼 인천 지역 3·1운동은 결코 소수 참여자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뚜렷한 주도계층이나 지도자 등은 거의 알 수 없을 뿐이다.

3월 13일 부평에 인접한 소래면과 계양면 주민 수백명은 소래산과 계양산에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는 등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는 강화도지역 3·1운동에 영향을 받은 바가 자못 크다. 햇불시위는 김포·부천지역으로 급속하게 전파되는 등 일정한 유대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뒤숭숭한 현지 분위기는 일본 경찰들을 크게 긴장시켰다. 3월 23일 인천경찰서는 부평주재소에 경찰 10여 명을 증파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부평지역에서는 심혁성을 비롯한 일단의 지사들이 장날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점을 기회로 삼아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3월 24일 부평 황어장에서 발발한 독립운동은 서울에서 출발한 3·1독립운동이 인천 각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 중 발발한 것이다. 장날을 거사일로 하고, 운집한 민중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주도자가 존재하는 등,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지역 3·1독립운동인 것이다.

독립만세운동 시위를 주도했던 주도자(심혁성과 임성춘, 이담 등)들은 특정 종교에 속해 있지 않았다. 물론 심혁성의 경우 천도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전문이 있기는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시위에 참여한 민중들 역시 천도교나 기독교 등 종교와 연결되는 집단은 아니었다. 따라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민중들 대부분은 부평 지역의 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해 오면서 경험적으로 친밀성을 지닌 집단인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때 생활 외적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결속력을 유지하고, 일관된 의지를 발휘하게 된 이유라 하겠다.

3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인천 지역이 3·1운동과 관련하여 발언권이 있다면, 그것은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결과물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집합지였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바로 4월 2일 오후, 인천 만국공원에서 개최되었다는 <13도대표자대회>가 그것이다. 이 대회는 3·1운동 기간 동안 국내에서 조직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유일한 사전 협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른바 <한성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만국공원 집회가 갖는 의미는 간단치가 않다.

일본 총독부의 주시 속에, 더욱이 3·1운동이 계속 확산되는 과정에서 독립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지도부가 와해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독립 정부 수립을 위해 많은 지사(志士)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13도대표자대회>라 하겠다.

독립 정부 수립을 위한 움직임은, 3·1운동 확산에 큰 영향을 준 『조선독립신문』을 통해 일반에게 알려졌다. 『조선독립신문』은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보성사에서 창간되었다. 3·1독립선언서를 인쇄한 곳으로 유명한 보성사는 종로구 수성동 44번지에 위치하였던 보성법률상업학교 구내에 있었다. 이 신문의 창간을 주도한 인물은 33인 중 한 명인 이종일이었고, 그의 명을 받은 『천도교월보사』 주필이던 이종린이 창간호의 원고를 집필하였다고 한다.

바로 이 독립신문 3월 6일자(제3호)에 13도 각 대표자를 선정하여 3월 6일 오전 11시 경성의 종로에서 조선독립대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이 공지된 것이다. 독립대회가 3·1독립운동 이전 이미 계획된 것인지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독립신문 발간과 배포에 민족대표 인사가 관여한 것이 확실한 만큼,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독립대회는 임시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 것이다. 독립대회를 계획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3·1운동으로 일제의 감시가 삼엄한 상태에서 공지된 대회가 열릴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3·1운동의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조선독립신문』의 발간과 배포에 있어서도, 3월 하순이 되면서부터는 그 주도권이 3·1운동의 주력 중 한 축인 천도교 측으로부터 학생층으로 넘어갔다. 이와 함께 활발한 운동성을 갖는 학생과 청년들은 격문류 등을 작성, 무작위로 배포함으로써 사실상 시위운동을 주도하였다. 예컨대 대구에서는 혜성단(慧星團)이라는 비밀단체가 조직되어 관공서 직원의 사퇴 권고와 상인 철시를 촉구하는 선전 활동이 격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인천에서도 내리에서 잡화상을 운영하는 김삼수(19세)와 외리의 객주집 사환인 임갑득(16세) 등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상인들이 상점을 폐쇄하는 등의 항쟁을 하고 있음에도 인천 내에서는 아무도 상점 철시 등의 움직임이 없음을 유감으로 여겨 격문을 작성 배포하였다. 4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들은 3차에 걸쳐 ‘인천의 체면상 점포를 닫지 않으면 최후 수단을 취하겠다’, ‘인천에 있는 상업가가 폐점하지 않으면 인천 시가는 초토화할 것이다’, ‘속히 폐점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을 취할 것이다’ 등의 협박문을 인천 외리의 이복현 등 16개 점포와 동부 내리 장지섭 외 수명의 점포에 투입하여 상점 철수와 폐점을 강요하다가 체포되었다. 당연히 일제에 의한 인천 지역의 경계는 그만큼 삼엄하게 전개되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국내 여러 곳에서 정부 수립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독립대회 역시 그러한 움직임 중의 하나일 것이다. 주목할 사실은 독립신문에서 제시한 계획이 시차는 있었지만,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점이다. 홍진(홍면희)과 이규갑, 한상수, 김사국, 안상덕, 권희목 등이 주동이 된 것으로 보이는 <13도대표자대회>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의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만국공원에서 개최된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홍진을 비롯한 지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국공원의 대회를 계획하고 실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제의 신문조서와 판결문, 회고록 그리고 기존의 연구 성과 등을 활용하여 그 과정을 제한적으로나마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3·1운동 발발 이후, 홍진과 이규갑을 중심으로 하는 지사그룹이 독립정부 수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활동을 개시한 시점은 <3월 중순>이다. 그런데 이규갑의 회고록에서는, 3월 초부터 홍진, 한남수 등과 극비리에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국민대회 개최를 논의하였다고 한다. 어쨌든 이들은 <비밀독립운동본부>를 만들어 자신들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사들을 규합한 것으로 보인다.

<비밀독립운동본부>이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이규갑의 회고록에만 유일하게 보이는 표현이다. 따라서 그 실체를 입증할 길이 지금까지는 없다. 아마도 자신들의 모임을 임시로 <비밀독립운동본부>라는 명칭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때까지 홍진과 이규갑이 규합한 지사들은 다양한 계층과 종교 그리고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전직 변호사였던 홍진은 주로 법조계(한성오, 권혁채)와 유교계(김규, 본명은 김교훈) 인사들을 접촉하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규는 이후 의병에도 참여한 바 있는 이만직과 최전구등을 추가로 포섭하였다. 이규갑은 주로 천도교계(안상덕)와 기독교계(장봉, 박용

회) 인사들을 접촉, 회합에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이규갑은 학생층의 규합에도 성과를 거두었다. 후에 장채극과 김유인 등은 이규갑이 포섭한 김사국을 통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일본 명치대 재학생들이었다고 한다. 이들 이외에도 많은 지사들이 독립정부 수립에 참여하였다. 결국 독립정부수립 운동은 3·1운동에서 제시된 전민족적 계층의 대표를 포괄한다는 이념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그런데 홍진과 이규갑을 비롯한 지사들이 독립정부수립의 구체적인 일정과 정부 수립 이후의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였던 시점이 문제이다. 관련 기록이 한 달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규갑의 회고록에 따라 일정을 재구성 하면 다음과 같다.

3월 17일 서울 한성오의 집에서 홍진(홍면희), 이규갑, 한남수, 김사국을 비롯하여 이교현, 윤이병, 윤용주, 최전규, 이용규, 김규(김교훈), 이민태, 민강 등 독립정부 준비를 위한 준비위원 거의가 참석하였다. 여기서 <한성정부>라는 명칭과 정부 각원들이 결정되었다. 또한 <국민대회 취지서>와 <임시정부 약법>을 정하였으며,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할 대표도 결정하였다. 특히 이 회합에서는 4월 2일 13도 대표자 대회를 인천 만국공원에서 열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이를 국민에게 공포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4월 2일 만국공원 집회에는 홍진, 이규갑, 권혁채, 한남수, 장봉, 박용의, 김규, 이종욱, (안상덕) 등 18~19명 정도의 지사들만 참석하였다. 그래도 이 만국공원 회합에서 국민대회를 조직하고 임시정부를 만들어 파리강화회의 및 각국에 조선독립의 승인을 요구할 것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한성정부 관련 인물들의 신문조서 및 공판시말서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3월 상순쯤부터 홍진과 이규갑을 중심으로 정부를 수립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 3월 상순경, 홍진은 자신의 집에서 한남규에게 임시정부 조직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는다. 이어 3월 20일경 한남수는, 홍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독립운동의 각 단체를 모아 국민대회를 조직하고 독립에 대한 협의를 위해 각 단체의 대표자가 인천 만국공원에서 회합하라는 소식을 듣고 이에 찬동하였다.

또 3월 31일과 4월 1일 이규갑은 안상덕에게 인천 만국공원에서 회합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각 방면의 대표자로 참석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3월 중순경, 이규갑은 김사국에게 한남규와 함께 국민대회를 조직하고자 하니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홍진은 3월말쯤, 인천에서 김규(김교훈)을 만났을 것으로 보인다. 김규는 홍진에게, 국민대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계획하는데 있어 각지의 대표자들을 인천 만국공원에 모이게 하였는데, 유교계의 대표로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인적 연락망과 관계망을 통해, 4월 2일 오후 인천 만국공원에서 <13도대표자대회>가 개최되었다. 일제의 감시가 심한 상태에서 그리고 상호 인식을 위해 엄지손가락에 흰 종이나 형짚을 감아 면식이 없는 사이에도 무언중이라도 서로 알게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였다. 만국공원의 회합에서는 임시정부의 조직, 파리평화회의에 대표 파견 그리고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정부를 수립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이어 4월 8일 이전 어느 날 서울 한성오의 집에서 홍진, 이규갑, 한남수, 김사국 등이 모여 임시정부 및 국민대회에 관한 구체적인 토의를 하였다.

이상 각기 상이한 자료를 토대로, 4월 2일 만국공원에서 개최된 <13도대표자대회> 전후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사실 두 가지 모두 날짜만 빼면 내용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도 하겠다. 다만, 인천 만국공원의 역사적 위치를 논의하자 할 때, 후자의 기록이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만국공원 회합이 철저하게 비밀회합이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참석 대상도 사전에 모두 결정되지 못한 집회였다. 은밀한 방법을 통해 참석자를 인식할 정도였으니까, 누가 참석할지에 대한 결정이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더욱이 이 시점은 인천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3·1운동의 확산이 최고점을 향하던 때였다. 따라서 일제의 경계망도 그만큼 치밀하게 작동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17일 회합에서 4월 2일 만국공원 집회를 결정하였다는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4월 23일 정부수립을 선포하는 국민대회 개최가 불과 4일 정도를 앞두고 결정되었는데도, 일제의 감시망에서 벗어나질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4월 2일 만국공원에서 개최된 <13도대표자대회>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3·1독립운동으로 고양된 독립의식으로 국내외 각지에서는 독립정부수립운동이 일어났다. 국외에서의 정부수립운동이 일제의 감시망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면, 국내에서의 정부수립운동은 일제의 탄압과 감시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3·1운동이라는 전민족적 독립운동이 전개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럴 때, 홍진과 이규갑을 비롯한 일군의 지사그룹은 3월 상순경부터 독립정부 수립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에 따라 은밀하게 동지를 포섭하였고, 그 결과 4월 2일 인천 만국공원에서 대표자대회를 열게 되었다. 이 대회는 일제의 감시망을 뚫고 독립정부를 수립하려는 의지를 가진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인 최초의 회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조직이 결정되었고, 파리강화회의의 대표 파견 문제가 결정되었으며,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이 결정된 대회였다.

여러 가지 다른 성향에도 불구하고, 만국공원 회합 참석자들은 독립정부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독립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 일제의 삼엄한 감시망 속에서, 계획과 추진 그리고 결과를 보았다는 점은 독립운동사상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정부수립운동에 인천의 만국공원에서 개최된 대표자대회가 중심에 있었다는 점이, 바로 인천의 역사적 위치라고 하겠다.

4

이처럼 인천의 각 지역에서는 민족의 독립을 위한 시위운동이 거의 전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못했지만, 덕적도를 비롯한 인천의 섬들에서도 치열한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임용우를 비롯한 영웅적인 지사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고립된 불리한 섬 지역에서도 민족의 독립을 위한 영웅적인 투쟁이 전개된 것이다. 섬이라는 특성상 인천 내륙 지역에서처럼 민중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장날〉 같은 계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덕적도의 지사들은 〈학교운동회〉라는 방안을 창출하여 지역적 불리함을 극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인천지역은 만세시위운동과 동시에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회합의 장소로도 기억될 필요가 있다. 인천의 민중들이 치열하게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던 와중에 일단의 지사들은 이 기회를 〈임시정부〉수립을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비록 결과적으로는 정부를 수립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민족의 대표기관을 수립하여 일제를 몰아내려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인천이 바로 그러한 계획 과정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순국(殉國)과 헌법(憲法)



조 세 현
(사) 순국선열유족회 감사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 95년 들어 몰락한 박근혜 정권에 이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통령 후보들은 앞 다투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고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드디어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로 하여금 이 개정(안)을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필자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반드시 기술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헌법이란 본시 국가의 이념을 담고 있는데, 먼저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 전문 중 국가가 성립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별하여 특징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국가의 이념을 정의에 두고 있는 나라들이 다음과 같이 여러 나라에서 발견됩니다.

① 미국 (연방의 형성과 정의의 확립)

- ② 러시아(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선과 정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선조들을 기리며)
- ③ 아르헨티나(모든 이성과 정의의 원천인 신의 가호)
- ④ 필리핀(정의롭고 인도주의적인 사회 건설)
- ⑤ 스페인(정의, 자유, 안전을 확립하고)
- ⑥ 이라크(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정의와 평등을 실현)

둘째로, 국가의 이념을 평화에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 ① 독일(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며)
- ② 일본(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 ③ 스위스(평화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결의하고)
- ④ 스페인(세계 모든 민족 간의 평화적인 관계)

셋째로, 국가의 이념을 복지에 중점을 두는 나라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 ① 스위스(국민의 힘은 약자의 복지를 기준으로)
- ② 캐나다(각 주의 복지에 기여함은 물론)
- ③ 헝가리(취약계층과 가난한 계층을 도와야 할 보편적 의무)

끝으로,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도록 이끈 조상(선조)들을 국가의 이념에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 ① 아일랜드(국가의 정당한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선조들의 용맹스럽고 부단한 노력)
- ② 헝가리(우리나라의 생존과 자유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우리의 선조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 ③ 폴란드(민족의 기독교적 유산과 보편적 인간의 자치에 뿌리내린 ... 우리 조상들의 노력과)
- ④ 러시아(조국에 대한 사랑, 선, 정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선조들을 기리며)

세계 여러 나라들은 대체로 일정 기간의 건국 과정을 기술하고 있으나 특정 사건을 기준으로 건국이념으로 기술하고 있는 나라로서는,

- ① 200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눈에 띄는데, 중국은 “1982년 12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회의, 1993년 3월 29일, 2004년 3월 14일, 1949년 중국공산당은 모택동 주석, 신해혁명, 모택동 사상과 등소평 이론 등” 세계에서 가장 장문의 헌법 전문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서, 약 2,800자(한글번역문 기준)에 이릅니다.

- ② 우리의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4·19혁명”에 이어 “부마 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건국 과정을 살펴보면 5,000년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1895년 한 반도의 한복판인 서울에서 일본의 침략자들에 의하여 왕비가 무참하게 참살을 당하였음에도 조정은 전혀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른바 내치권(치안권)이 무력화됐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미 나라는 망한 것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순국선열 홍보책자 표지

1869년 북해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하고, 이어서 1879년 유구 열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 성공에 맛 들인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 땅을 일본에 편입시키고 조선인을 일본 민족으로 통합하고자 혈안이 된 나머지 1905년 이른바 ‘을사조약’으로 외교권마저 빼앗아가, 이로써 한국은 내치·외교권을 모두 빼앗겨 “식물인간”으로 전락하고 있다가 1910년 “경술국망”으로 나라를 완전히 잃게 되어 우리 한국 인들은 긴긴 50년간(1895~1945)이나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일제강점기”로 들어섰습니다.

을미의병(1895년)으로부터 50년, 삼일만세운동(1919년)으로부터 장장 26년간 식민지 백성으로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안의 순국선열 위패봉안 모습

신임하였습니다.

일본은 “문화적 차이가 조선에 비하여 우월함으로 우월한 일본 문화를 조선에 전파하겠다.”는 “문화의 전파”라는 미명으로 조선을 침략하더니, 드디어 왕세자가 보는 앞에서 국모인 민비를 무참히 살해하면서 그들의 마각은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의 의병들이 항거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우수한 일본군에 대항할 수 없는 의병은 무참히 죽어나갔습니다. 외국의 기자들은 이를 일컬어 genocide(대학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아니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한국인의 전답을 강제로 빼앗는가 하면, 한국인 고유의 한글을 쓰거나 말하게 되면 처벌조차 서슴지 않았고, 한국인 고유의 성씨(姓氏)마저 일본 성씨로 바꾸도록 강요하였습니다(創氏改名). 마침내 한국인의 혼마저 빼앗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싸운 수백만의 우국지사 가운데 가장 처절하게 숨진 이들을 우리는 “순국선열”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들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참히 죽어간 것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이 처

자식이나 재산 등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우리나라 학자들은 순국선열을 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긴긴 일제 강점 기간 동안 일본군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자료를 없애거나, 또는 유실되어 전체 15만 명 중 약 3,500명(약 2%)만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나머지 98%의 순국선열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이름 없는 순국선열(無名殉國先烈), 또는 후손 없는 순국선열(無後殉國先烈)”로 남아 있으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한국인 처녀들을 강제로 끌고 가 일본 군인들의 성(性) 노리개로 삼는 등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식민지정착을 펴왔으며, 지금도 그들의 헌법 전문에 “다시는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로 기술하면서 정부의 형태만을 핑계 삼고 있으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국제무대에 선전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으로 시작하고 있으나, 일제강점기(한국인에게서는 일제에 대한 저항기) 50년간 가운데 3·1운동은 그 중간인 1920년(1919년)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반기(1895~1920) 중 66.7%인 약 10만 명의 선열이 이미 순국하신 것으로 보아 3·1운동 이전 기간 중 격렬한 저항이 있었음을 추정하게 됩니다(이는 자료가 남아 있는 순국선열 3,000명을 총 순국선열 150,000명에 대하여 역으로 계상한 추정치임).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그 전문에 무엇보다 더 우선하여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술하여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반듯한 주춧돌 위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순국선열의 희생”을 명기함으로써 다가올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서라도 이러한 현명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남북간의 대화에 즈음하여 “순국선열의 희생”만큼 더욱 큰 공통분모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불행하게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한반도 강점이 원인이 되어 지금도 침략의 가해국인 일본은 온전히 국토를 보전하고 있으나, 피해국인 우리나라는 1945년 조국 광복을 맞이하였음에도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러시아군)이 점령한 상태로 “순국선열”이 목숨 바쳐 찾아낸 조국은 두 동강이 난 상태로 쌍방 간에 준전시국 형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54년에 불행하게도 식민사관을 견지해온 이병도 등은 역사 교과서를 기술하면서 “일본의 연합군에 대한 무조건 항복이 광복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독립항쟁 자체를 부인하였고, 당시의 홍이섭, 유홍렬, 김상기, 역사교육연구회 등이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다행히도 1968년 변이섭 교수 등이 “한국의 광복은 독립운동과 연합군의 전승에 힘입은 것이다”라고 하고, 1974년 제3차 국정교과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광복은 “독립전쟁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께



임 홍 재
현 국제회의연구소장
전 베트남 주재 대사

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주 베트남 대사로 근무하면서 베트남이 1986년 “도이머이(刷新)” 개방정책을 채택한 이래 신흥시장국가로 급속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연히 베트남인들의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근세에 들어 베트남이 80여 년간 프랑스 식민지 통치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그 후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지도자로서 베트남 국민들을 이끌었던 호치민 주석에 대해 알면서 왜 베트남 국민들이 호치민을 “박 호(호치민 큰 아버지)”로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호치민을 공산주의자이기 전에 애국자, 민족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한때 “애국(愛國)”이란 이름도 썼으며, 거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공산주의를 수단으로 수용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호치민은 1911년 21세 나이에 조국을 떠나 30년 간 4개 대륙 28개국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특징과 동향을 파악, 베트남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호치민은 1940년 초부터 1945년

(독립투쟁, 독립항쟁)이 그 결실을 맺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대한민국의 헌법에 “순국선열의 희생”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례의 핵심인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헌법 개정 업무에 참여하고 계신 인사들은 “순국선열의 희생” 일곱 글자 삽입에 인색하지 말 것을 기대합니다. 친일파들은 분명히 이를 기피할 것입니다.

1905년 을사년 늑약과 1910년 경술년 한일 강제합방조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우리의 순국선열, 애국지사 등 독립항쟁가가 계시지 않았다면 위 양개 조약에 의해 지금도 한국은 일본의 속국이 되어 1945년 연합국의 승리로 인해 패전한 일본과 한국은 똑같은 패전국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끔찍한 가정을 하게 되며 외국의 침략에 무저항한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하여, 자손만대의 치욕으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현대 무기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군인들의 정신전력증강(精神戰力增強)에도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그 중심 과제로 삼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대치할 것입니까? 순국선열의 희생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이유입니다.

한편 순(殉) 자를 자주 쓰고 있는 용어로서는 순직(殉職), 순교(殉敎), 순국(殉國) 등의 용어를 들 수 있는데, 순(殉)이라는 한자(漢字)는 뼈 알(歹) 변에 가득할 순(旬)으로 이를 합치면 뼈가 가득할 정도로 목숨을 바친다는 뜻으로 풀이하게 되며, 첫째로, 순직, 즉 직장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례로서 세월호 침몰사건 때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학생을 구출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던진 단원고 선생님들이 좋은 사례이며, 둘째로, 신앙심을 지키려고 순교하신 김대건 신부님 등 수많은 순교자를 들 수 있고, 셋째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남자현 의사, 유관순 열사 등 15만 명의 순국선열을 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정신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서대문구 독립공원에 위치한 순국선열 현충사에는 독립항쟁 행적이 밝혀진 약 3,000분의 순국선열 위패가 모셔져 있으나 장소가 비좁아 약 700여 분의 순국선열 위패를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지도자나 사회지도층에 계신 분들은 소속 단체원들의 손을 이끌고 초라한 순국선열 현충사를 참배하여 국민 된 도리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 2018년은 우리 대한으로서 민국 100년이 되는 해이며 내년 2019년은 대한민국 10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인만큼 100년 전의 순국선열들께서 ‘우리도 대한민국 헌법에 등장하게 되었구나’ 하시면서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중국 광둥, 충칭, 쿤밍, 윈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호치민이 중국에서 독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을 때, 같은 고난의 위치에서 같은 목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생님과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호치민 주석은 민족해방과 독립을 위해 생애를 바친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두 지도자의 사상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정치 소신은 한 마디로 말하면 자유라고 말하셨고, 호치민은 독립과 자유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과 호치민 간 교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1979년 간행된 조정환 선생의 <백강회고록(白岡回顧錄)>에서 보았습니다. 이 회고록에 따르면, 충칭에 머물던 선생님과 임정 일행이 1945년 말 고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상하이로 와 있을 때 매일 저녁 방문과 초대로 눈코 뜰새가 없었는데, 그중 가장 큰 초대원은 상해의 전 교포들이 베푼 것, 호치민(호지명, 뒷날 월남 베트콩의 영수)이 베푼 것, 중국의 여러 지도자들이 베푼 것 등등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이 글을 읽은 후 2010년 7월에 당시 백범김구기념관장(白凡金九記念館長) 김신 장군을 방문하여 말씀을 들었는데, 김 관장은 본인이 어렸을 때 호치민이 충칭의 우리 임시정부 청사를 가끔 방문한 적이 있으며, 선생님과 호치민 간 통역을 한 적이 있다고 회고했습니다.

김 관장은 그 당시 호치민은 키가 왜소하고 마른 모습이었으며, 중국 광둥지방 의복을 입고 광둥지방어를 구사하여 영락없는 중국인이었다고 술회했습니다. 호치민은 한국은 일본만 패망하면 독립하게 되지만, 베트남은 일본이 베트남에서 물러나게 되면 프랑스가 다시 베트남에 돌아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베트남 독립에 어려움이 많다고 걱정하곤 했다고 합니다.

김자동 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도 <임시정부의 품 안에서>에서, 김신 장군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호치민이 충칭에 있는 동안 임시정부 청사를 수차례 들러 백범과 교분을 쌓았으

며, 1945년 11월 5일 임정일행이 상해에 왔을 때 호치민 주석이 일부러 상해로 와서 임정 일행을 위해 환송연을 열기도 했다고 술회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 두 나라는 벌써부터 교류가 있었습니다. 1127년 베트남 리왕조(李王朝)의 이양훈(李陽焄)이 고려에 와서 정선이씨(旌善李氏)의 시조가 되었고, 99년 뒤인 1226년 베트남 리왕조의 왕자 이용상(李龍祥)이 국난을 피해 고려로 와서 화산이씨(花山李氏)의 시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 왕자들이 이미 오래 전에 우리 두 민족 간 접촉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집(芝峰集) 등 기록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조선과 베트남의 사신들이 북경에서 접촉하였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냉전시기를 보낸 후인 1992년에 수교했습니다. 2017년은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그리고 사돈의 나라로 발전된 양국관계는 유사한 역사 및 문화적 배경과 함께 두 국민 간 끊임 없는 접촉과 교류에도 힘입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지도자 선생님과 베트남 민족의 지도자 호치민 간 고난의 독립운동 기간 교류와 친분이 확인이 되면, 1억 인구 베트남의 우리에게 대한 호감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임시정부 중국 내 이동 경로와 호치민의 중국 내 활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선생님께서 오래 전에 우리 양국 간 우호를 위해 심어놓으신 씨를 찾아 결실을 맺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35년(총 3권)

• 지은이 · 그림 | 박시백 • 쪽수 | 904쪽 • 출판사 | 비아북



믿고 읽는 박시백의 대한역사만화

박시백 화백의 신작 <35년>은 일본에 강제 병합된 1910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일제강점기 우리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연속선상에 있고, 연결되어 있다. 작가는 <조선왕조실록> 집필이 강제로 멈춰버린 시기 이후의 역사에 주목했다. 식민지의 삶이라는 오욕의 역사가 우리의 ‘현재’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3·1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2019년까지 전 7권 출간이 예정된 <35년>은, 가혹한 탄압으로 조선을 집어삼킨 조선총독부와 경찰들, 일신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 나라와 동족을 팔아넘긴 친일파들, 민중의 들끓는 저항이 폭발했던 3·1혁명의 순간들과 그 이후의 대중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분열, 식민지 경성에서 벗어나 간도, 연해주, 상하이, 하와이를 넘나들며 해외에서 독립의 가능성을 모색했던 이들, 무장투쟁과 의열투쟁으로 독립을 향한 의지를 보여준 봉오동 청산리전투와 의열단의 의거,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 다른 세계를 꿈꾸었던 이르쿠츠크파와 상하이파 고려공산당 등 수많은 인물과 단체가 역사적 현실이 가감 없이 그려진다. 박 화백은 만평작가

출신답게 촌철살인의 감각으로 당대의 사건과 인물들을 현재적 시점에서 재해석하고 입체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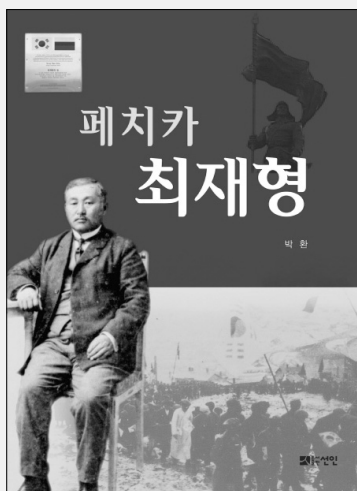
또, <35년>은 다양한 쟁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일제강점기는 대개 유관순의 3·1만세운동과 안중근의 의거, 김좌진의 청산리전투 등 일부 영웅적 인물과 사건에만 치중해 각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35년>은 그 수많은 역사적 쟁점 중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예컨대 임시정부의 활동과 분열, 사회주의 운동의 분화 등 비교적 소외되었던 복잡한 쟁점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다.

각 장의 첫머리에는 지도와 함께 대표적 사건이나 인물이 인포그래픽으로 소개된다. 지리적 정보와 함께 제시되는 사진 자료와 간략한 내용 정리를 통해, 독자가 텍스트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만화와 교과서(역사부도) 구성과의 결합으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교육 현장에도 실질적인 연계와 활용이 가능하며, 수업을 통해서는 상세히 알 수 없었던 쟁점들을 보완하는 보조교재로서도 손색이 없다.



페치카 최재형

• 지은이 | 박환 • 쪽수 | 368쪽 • 출판사 | 선인



페치카는 러시아어로 난로라는 뜻으로 최재형의 애칭(愛稱)이다. 그는 동포들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로 인식되었다. 안중근 의거의 숨은 공로자, 시베리아 항일운동의 대부였던 그는 노비 출신의 자산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총장으로 실천적 항일운동가였다. 잊혀진 기록 최재형이 불멸의 영혼으로 역사 속에 새로이 부활하기를 기대한다.

최재형은 1860년대 조선에 큰 흉년이 들어 한인들이 만주, 러시아 등지로 최초

의 집단 해외 이주를 했던 시대에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함경도 출신의 노비였다. 이주 후에 그는 러시아 상선을 타고 전 세계를 두루 돌아다닌 뒤에 1900년 의화단 사건, 1904년 러일전쟁, 1910년 일제의 조선강점,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917년 러시아혁명, 1919년 3·1운동 등 한반도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둘러싸고 전개된 20세기 초반의 국내외적인 격랑의 세월 속에서 한 시대를 이끌어간 풍운아이자, 기업인, 독립운동가,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잊혀진 원형이었다.

최재형은 1880년대 러시아에 귀화한 뒤 그 지역의 한인자치기구의 책임자인 도헌(都憲)과 기업인으로 성장하여 재러 한인사회를 이끈 대표적인 지도자였으며,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가장 신망을 받은 친러 인사였다. 그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적극적으로 항일투쟁에 참여했고, 1920년 시베리아에 출병한 일본군에 의해 처형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전설적인 영웅의

이름을 남겼다.

즉, 1900년대에는 러시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의병 조직인 동의회의 총재로서 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된 민족 언론인 <대동공보>와 <대양보>의 사장을 역임했으며, 1910년대 초반에는 권업회 총재,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대한국민의회 명예회장으로 활약하는 등 1900년대부터 1920년까지 러시아 지역에서 조직된 주요 단체의 책임자로 일했다. 최재형이야말로 우리나라 초기 독립운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다. 3·1운동 이후에는 상하이에서 성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총장에 임명되기도 할 만큼, 최재형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중추적인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최재형에 대한 전문연구서는 간행된 적이 없다.

이 책을 만들면서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다양한 사진과 지도 등을 첨부하여 독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재형의 자녀들이 남긴 회고록 가운데 해당 시대에 관련되는 부분을 넣어 생동감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하고자 하였다. (머리말 中)



학살, 그 이후의 삶과 정치

• 지은이 | 한성훈 • 쪽수 | 488쪽 • 출판사 | 산처럼



민간인 학살의 입체적인 설명과
학제간 연구의 결정판!!
감시와 사찰, 사상의 지배,
학살의 메카니즘을 파헤치다!!
전쟁 무기로서 여성을 강간하는
제노사이드 범죄를 밝힌다!!

▶ 인류는 수많은 학살을 왜 되풀이 하는가?

이 책은 근대 이성의 도구적 합리성으로 빚어진 학살과 전쟁의 보편적인 특성을 다루면서 우리나라 사례를 짚어본다.

사람을 죽임으로써 승리를 쟁취하는 전쟁의 난폭함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왔다. 수없이 되풀이되는 대량학살은 전쟁의 목표이자 전투 수행의 본질에 해당한다.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여야 하는 전장은 살해에 대한 파괴적 욕망을 부추긴다. 지은이는 ‘이름 없는 아기’들의 죽음과 사람을 죽이기 위해 쓰는 술한 총격, 죽은 시체의 일부를 훼손해 전투성가를 입증하는 행태 속에 가려진 인간의 공격 본능과 살해 욕망을 들춘다.

▶ 국제사회에서 유엔이 전쟁과 제노사이드를 예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쟁 그 자체가 이미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인권침해의 구조적 조건을 안은 채 수행된다. 이 책은 제노사이드 범죄를 방지한 국제정치의 한계와 유엔과 미국의 역할, 책임을 보여준다. 국제사회에서 대량학살이 쉽게 발생하고 있지

만 유엔과 주권국가는 외교 무대에서 자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지은이는 유엔의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정과 ‘G-단어(G-word, Genocide)’가 국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왜곡되었는지, 그 사례와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 여성에 대한 강간이 어떻게 전쟁의 무기가 되었는가?

1990년대 이후 르완다와 유고 국제형사재판에서 확립된 최초의 제노사이드 판결과 강간, 미디어 케이스 그리고 증오 범죄에 대한 정의는 인류 역사에서 진일보한 사건이다. 이 책은 군인들이 소수민족을 ‘인종 청소’하기 위한 전쟁 도구로서 여성들을 강간하는 행태를 직시한다. 여성에 대한 강간이 전쟁 무기로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국제사회의 현실그리고 제노사이드 범죄의 확대와 고문으로서 강간을 자세하게 짚는다.

▶ 주권국가는 자국의 시민을 무엇 때문에 학살하는가?

주권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학살에서 중요한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정치 과정이다. 증오의 저변에 흐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념과 종교, 인종, 이데올로기이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행위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이 책은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방안으로서 인권정치를 제안한다. 지은이는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정책과 후원으로 실행되는 학살과 제노사이드 범죄를 가해자의 동기와 의도성뿐만 아니라 그 피해 결과를 놓고 판단할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 사찰과 감시, 사상의 지배는 학살과 어떤 개연성을 갖는가?

이 책은 학살이 사상의 지배와 정치적 의도를 근간으로 하고 한국전쟁 때 정치권력의 이런 행태는 일제 강점기부터 정부 수립과 최근까지 시민에 대한 사찰과, 감시, 검속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밝힌다. 시민을 사찰하는 것은 신원조사와 함께 정치적 반대자를 통제하는 것이며, 공안사범은 정부가 각종 ‘정치사상범’을 관리하는 또 다른 감시체계의 한 유형이자 사상을 통제하는 차별의 방식이다. 사찰이 일반화되는 형태로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과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확대된 감시는 시민의 정치적 견해



를 문제 삼아 일상을 통제하는 현상으로 확대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지은이는 정보수사기관의 사찰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독자들에게 일깨운다.

▶ 피해자의 삶과 귀환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피해자의 삶을 다룬 전형으로서 이 책은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살이라는 하나의 결과로부터 비롯된 사상의 지배와 사찰, 감시, 통제 등 정치권력의 이면을 드러낸 최초의 성과물이다. 지은이는 신원조사와 연좌제로부터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의 복원에 초점을 두고, 공동체 성원으로서 ‘권리를 가질 권리’와 시민권리의 보편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자유로서 증언이 갖는 정치 행위의 의미를 되새긴다. 증언은 누군가를 대신하는 한 사람의 기억이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몸에 기억을 새긴 사람들이다. 책에는 ‘충알 자국을 몸에 새긴’ 생존자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증언과 기억, 정체성을 다루고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갈등과 비극의 삶, 피해자 배·보상, ‘사회적 죽음’의 의미 그리고 공동체에서 최고의 관계란 어떤 것인지 제시한다.

▶ 본문 보기

인권이 정치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혁명적 성격은 ‘평등-자유 테제’의 전위로서 역할하기 때문이다. 시민으로서 인간,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모든 인간이 시민의 권리를 실증적이면서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최상의 규범이 바로 인권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가 시민에게 부여하는 보편적 권리의 무한한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인권이 평등 속에서 차이의 권리를 긍정하는 자유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경계를 확장시킨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근원적으로 긍정하는 측면에서 깊은 내적 개연성을 갖는다. 이들의 가치는 정치 과정에서 주권자와 인간에게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또 이것이 추구하는 권리의 무제한성이라는 매우 이상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성좌星座를 이룬다. ‘권리를 가질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그 가치를 실현하려고 할 때 인권은 정치 과정에서 핵심이 될 것이다. (248쪽)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등 항일독립 문화유산 5건 문화재 등록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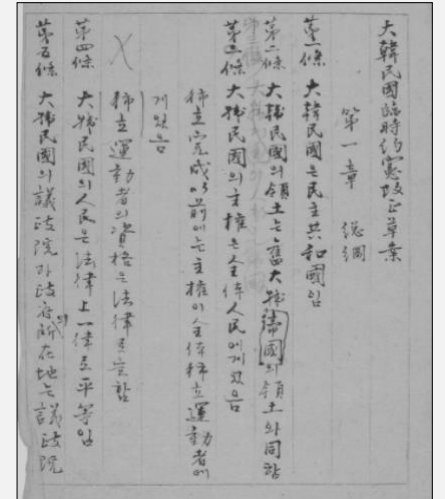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1년 앞두고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당시 입법부) 문서가 ‘항일독립 문화유산 문화재’로 등록된다.

국회도서관은 27일 문화재청이 최근 문화재 지정 및 등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시의정원 문서가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해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28일에 공식적으로 문화재 등록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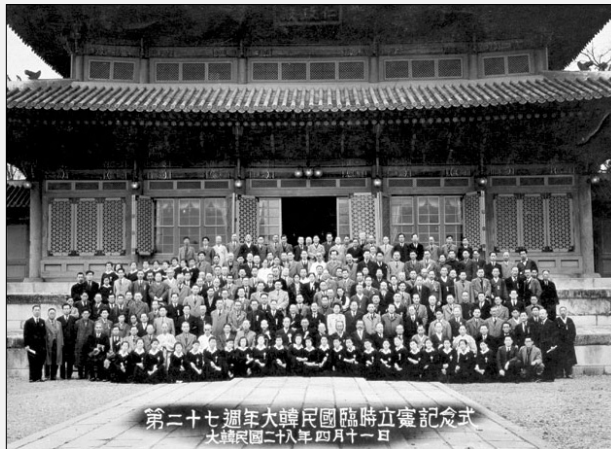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1천536장의 임시의정원 문서는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 상하이(上海)에 수립된 임시의정원의 활동과 관련된 중요 문서들이다.

이 문서는 임시의정원 의장을 세 차례 역임한 독립운동가 홍진 선생이 해방 이후 환국할 당시 가져왔으며, 그의 유족들이 6·25 전란 중에도 끝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1967년 국회도서관에 기증했다.

임시의정원 문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최초로 명기된 ‘대한민국 임시약헌(헌법)’ 개정안 초안 원본과 해방 후의 대한민국 재건계획을 담은 건국강령, 당시 의원 당선증, 광복군 작전보고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언제인가? 학술심포지엄



3월 26일(월)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언제인가?>라는 주제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주관, 국가보훈처 주최, 표창원 국회의원실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1919년에 수립했다. 정부는 1989년 4월 13일을 임

시정부수립 기념일로 제정했지만 실제 기념일이 4월 11일이라는 사료가 잇따라 발견됐다. 학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는 동안 임정 요인들은 4월 11일을 임정 수립기념일로 계속 지켜왔고, 해방 뒤 귀국한 이후에도 같은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실제 임정 요인들이 1946년과 1947년 각각 창덕궁 인정전 앞에서 4월 11일 입헌기념식 행사를 마치고 남긴 기념사진이 발견되기도 했다. 임시정부 수립 4년차인 1922년 임시정부의 달력에는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이 4월 11일로 표기됐다. 또 1938년 임시정부 여당 기관지 <한민>도 4월 11일에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기록했다. 반면 현재 기념일인 4월 13일의 근거가 되는 사료는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 자료 등 2건이 전부다.

학술회의에 참가한 심덕섭 보훈처 차장은 “우리 헌법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임정의 수립일 논란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며 “학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임정의 생일을 확정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변경된다. 1989년 기념일 제정 이후 30년만이다.

제99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4월 13일(금)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앞 야외 광장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제99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기념식은 식전참배행사, 임시정부수립과정 재연 및 임시헌장 낭독, 기념사, 기념공연, 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등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의 뿌리, 우리의 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표어 아래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와 역사성을 알릴 수 있는 행사로 거행되었다.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재현하여 우리나라의 국호 및 민주헌정사가 임시정부에서 비롯되었음을 알리고, 임시헌장 낭독으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4월 13일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을 법령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4월 11일로 수정해 기념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협상 70주년 기념 학술회의 〈1948년 남북협상과 한반도의 미래〉 개최



4월 17일(화)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우사 김규식연구회가 주최·주관하고 국가보훈처와 광복회가 후원하는 〈남북협상 70주년 기념 학술회의 '1948년 남북협상과 한반도의 미래'〉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4월 27일의 남북협상을 앞두고, 지난 1948년 남북협상을 이끈 백범 김구와 우

사 김규식 선생의 지혜를 모아 남북 평화와 민족 화해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송인 손범수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대독되었으며, 박유철 광복회장, 한완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부영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개회식에 이어 심지연 경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 발표 주제

1. 북한에서 보는 남북협상과 남북관계 개선 전망

- 발표 : 이신철(성균관대 연구교수)
- 토론 : 이승환(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2. 남북협상의 사상적 배경

- 발표 : 이상수(언론인)
- 토론 : 한승동(한겨레 기자)

3. 남북협상의 역사적 재평가

- 발표 :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토론 : 장원석(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학예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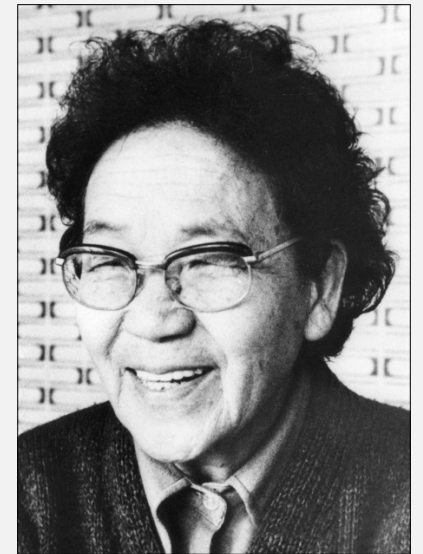
4.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 시도이다_버취문서를 통해 본 김규식

- 발표 : 박태균(서울대 교수)
- 토론 : 김숙임((사)조각보 공동대표)

권기옥 애국지사 추모식

4월 18일(수) 오전 11시 공군회관에서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 주최,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후원으로 '권기옥 애국지사 추모식'이 개최되었다.

권기옥은 북한 평양에 있는 승의여학교에 다닐 때 비밀결사 모임인 '송죽회'에 가입해 태극기를 제작하고 애국가를 복사하는 등 독립운동을 했으며 독립 자금을 모금하고 공채를 판매해 임시정부에 송금했다. 평안남도 도청 폭파 사건에 가담하고 '평양청년회 여성전도대'를 조직해 활동할 때 일본 경찰들의 감시가 좁혀오자 상해 임시정부로 건너가 임정의 추천으로 운남육군항공학교 1기생으로 입학, 한국인 첫 여성 비행사가 됐다. 중국 공군에서 10여 년간 복무하며 대위까지 오른 그는 1928년 난징(南京)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으며 그해 공군에서 함께 활동한 독립운동가 이상정(1896~1947년)과 결혼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국민정부의 피난 명령에 의해 조선민족혁명당 관련자 등 90여 명과 함께 충칭(重慶)으로 건너가 국민정부 육군참모학교 교관으로 한국애국부인회를 재조직해 여성들의 독립사상 고취에 나섰다. 광복 이후 귀국한 그는 초창기 군 조직과 공군 창설에 기여했고, 6·25전쟁 때는 전선을 직접 누비기도 했다.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



4월 24일(수) 서울 종로구 서린동 전옥서 터 앞에서 ‘전봉준 장군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이날 열린 동상 제막식은 사단법인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위원회’ 주최로 일제침탈과 봉건지배에 맞서 싸운 전봉준 장군의 얼을 기리고, 민족·인권운동의 효시인 동학운동의 시대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개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동상을 제막하는 이 자리는 바로 123년 전 전봉준 장군이 순국하신 전옥서 터”라면서 “이곳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제국주의와 독재 그리고 정권의 부패에 항거했던 3·1운동과 4·19혁명, 6월 항쟁과 촛불시민혁명 현장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뜻깊은 이곳에서 장군을 영원히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동학 농민혁명이 남긴 자유와 평등정신을 알릴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축복”이라면서 “그의 큰 뜻을 받들어 우리도 서로를 하늘과 같이 섬기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봉준 장군 동상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모은 국민성금 2억7천여 만원으로 세워졌다.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8년 3월, 4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3월	4월	회원명	3월	4월	회원명	3월	4월
강만길		20,000	박인석	10,000	10,000	이일선	20,000	20,000
강성모		100,000	박재민	10,000	10,000	이재선	5,000	5,000
강재욱	20,000	2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중찬	100,000	100,000
강찬모	20,000	20,000	박제선	30,000	30,000	이창윤	10,000	10,000
곽태원	50,000	5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창중	20,000	20,000
권영관	10,000	10,000	배다지	10,000	10,000	이 철	10,000	10,000
길사원	10,000	10,000	배상윤	5,000	5,000	이학노	20,000	20,000
김광림		30,000	배해원	10,000	10,000	이학효	10,000	10,000
김광재	5,000	5,000	백낙청	10,000	10,000	이항중	30,000	30,000
김대현	15,000	15,000	백부원	10,000	10,000	이해나	20,000	20,000
김동수	30,000	3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이현진	10,000	10,000
김동현	10,000	10,000	방인섭	30,000	30,000	이호현	20,000	20,000
김률근	10,000	10,000	서동희	5,000	5,000	이후삼	10,000	10,000
김봉현	30,000	30,000	서봉수	10,000	10,000	임재경	10,000	10,000
김빛나	10,000	10,000	서홍관	30,000	30,000	임진택	5,000	5,000
김상웅	20,000	20,000	석혜진	10,000	10,000	임홍재	110,000	110,000
김선군	10,000		신명식	10,000	10,000	장두영	10,000	10,000
김성곤	10,000	10,000	신윤경	500,000	500,000	장두원	20,000	20,000
김성배	10,000	10,000	신태영	10,000	10,000	장상록	10,000	10,000
김숙정	50,000	50,000	신희범	10,000	10,000	장채령	10,000	10,000
김영방	10,000	10,000	심옥주	10,000	10,000	전영복	10,000	10,000
김영일	10,000	10,000	심재권	30,000	30,000	정관훈	100,000	100,000
김용수	5,000	5,000	안재웅	10,000	1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 위	20,000	20,000	안효진	10,000	10,000	정범구	10,000	10,000
김윤영	15,000	15,000	양인선	10,000	10,000	정철승	30,000	30,000
김은수	10,000	10,000	염기남	1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염승훈	10,000	1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재홍	10,000	10,000	오상균	10,000	10,000	조영빈	5,000	5,000
김정록	140,000	120,000	오정섭	10,000	20,000	조용욱	10,000	10,000
김정인	20,000	20,000	우상호	10,000	1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종규	10,000	10,000	원영애	2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종숙	10,000	10,000	유덕곤	10,000	10,000	조희환	20,000	20,000
김진현	50,000	50,000	유영일	30,000	3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태원	10,000	10,000	윤경자	20,000		차영조	20,000	
김판수	5,000	5,000	윤용환	10,000	1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학근	20,000	20,000	윤종순	5,000	5,000	최권행	30,000	30,000
김호진	10,000	10,000	윤철호	100,000	10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윤한옥	10,000	10,000	최문순	10,000	10,000
남만우	50,000	50,000	이계환	10,000	10,000	최수희	30,000	30,000
노수문	20,000	20,000	이규중	30,000	30,000	최희주	10,000	10,000
노수현	10,000	10,000	이기자	10,000	10,000	한의석	10,000	10,000
노영택	10,000	10,000	이동진	20,000	20,000	한홍구	20,000	20,000
노웅래	20,000	20,000	이두엽	50,000		함세웅	30,000	30,000
류동연	20,000	20,000	이범중	100,000	100,000	홍범식	20,000	20,000
류한수	15,000	15,000	이상준	200,000	200,000	홍석천	5,000	5,000
민향선	30,000	30,000	이상훈	20,000	20,000	홍용희	10,000	10,000
박복삼	10,000	10,000	이석문	10,000	10,000	황명하	10,000	10,000
박덕진	10,000	10,000	이양순	20,000	20,000	황용만	5,000	5,000
박성순	10,000		이영국	10,000	10,000	황인자	30,000	30,000
박아영	10,000	10,000	이영숙	10,000	10,000			
박용규	10,000	10,000	이원표	100,000				
박유진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윤옥	20,000	20,000			
박익란		20,000	이응국	5,000	5,000			

2018년 3월, 4월 특별회비

회원명	3월	4월
(주)오토오티오	15,000,000	15,000,000
김판수	3,000,000	

서대문형무소와 독립운동가 ㉨

김규열과 서대문형무소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에 나타난 김규열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출신, 직업, 나이 등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앞면에는 죄명 보안법범(保安法犯), 집행 감옥 ‘서대문’ 이라고만 간략히 적혀 있어 어떤 사건으로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뒷면에는 이름이 적혀 있고 정면과 측면에서 찍은 사진 두 장이 함께 있다. 매우 짧게 자른 머리에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데 약간 두툼한 겨울철 수인복을 입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옥에 수감되면 감옥의 분위기에 눌려 약간은 어눌한 모습인데, 그는 어깨와 가슴을 펴고 고개를 든 모습으로 앞을 바라보는 당당한 자세로 사진을 찍었다. 정면 사진의 가슴 부분과 측면 사진의 어깨 부분에는 ‘김규열’ 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카메라 렌즈의 문제인지 날씨 때문인지 화질이 좋지 못해 이름은 보이질 않는다.

김규열의 행적에 관한 조금 더 상세한 기록은 1920년(대정 9년)에 작성된 재판 판결문에서 알아볼 수 있다. 당시 28세였던 김무열은 황종화(黃鍾和), 이영봉(李永鳳), 최익무(崔翼武) 세 명과 함께 판결을 받았다. 그의 직업은 농업이며, 고향은 전라남도 구례군 내산면 관산리이다. 죄명은 정치범 처벌령 위반, 공갈, 출판법 위반으로 수감자 기록카드에 작성된 것보다 많다. 일제는 이 네 사람이 불온문서를 배부하고 불특정 다수를 선동함으로써 조선의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을 점점 왕성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심리했다. 아울러 일제는 취조과정에서 이들이 배포한 문서가 발각될 경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처벌을 각오하고 행동했음을 자백 받았다.

김규열을 포함한 이들의 활동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9년 11월 서울 권농동(勸農洞) 황종화의 집에서 수차례 독립운동을 의논하다가 중국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파견원인 강태동(姜泰東)·이정래(李丁來) 두 사람과 만나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격문 인쇄물 수백 매를 받고 배부하라는 위임을 받았다.

격문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일제의 관공리인 동포에게’는 “수십 원의 월급 증액이니 하는 달콤한 미끼를 탐내어 천고(千古)에 매국노가 되기를 거부하고 신속히 그 올가미를 벗어날 것을 혈루(血淚)를 뿌리며 충고한다”는 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명의의 격문이다. 둘째 격문은 ‘포고 제1호 남녀학생에게’란 제목으로 “여러분은 용감히 일어서서 민족 유일의 요구인 독립에 대해 결심을 굳히고 천지를 진동케 하는 만세를 합창하여 삼천리강산에 태극기를 휘날려라”라는 내용이다. 세번째 격문은 ‘포고 제2호-상업에 종사하는 동포에게’란 제목으로 “3월 1일 대한민국은 독립을 선포하였는데 여러분은 막대한 손해를 돌보지 않고 장기간 폐점하여 독립과 자유를 요구하고 민족의 의사(意思)가 강렬함을 표시함으로써 전국 국민의 꺾기와 세계의 동정을 얻게 했다”는 내용이다.

김규열은 이 문서 가운데 첫째와 셋째 격문을 전라도 각지에 배부하라는 의뢰를 받고, 고순흙(高順欽)이라는 사람에게 건네주면서 전라남북도 각지에 배부했다. 이후 이 일이 발각되어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1920년 10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범 처벌령, 공갈, 출판법 위반 등으로 김규열은 징역 2년형, 황종화는 5년형을 언도받고 항소하였으나, 1920년 12월 4일 경성북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로 인해 김규열은 서대문감옥에서 2년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공>

◆ 입 회 원 서 ◆

이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택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직업		소속	
비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 25일 ☐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자유지정금액 ☐ (원)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러시아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서

2018. 7. 19. 목 ~ 2018. 7. 24. 화 (5박 6일)

답사지역 : 자루비노-크라스키노-우수리스크-라즈돌노예-블라디보스톡-하바롭스크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선발인원 _ 국내외 대학(원)생 25명 내외

선발대상 _ 역사와 민족의식이 투철한 남녀대학생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접수기간 _ 서류접수 2018년 5월 21일(월) ~ 2018년 6월 6일(수)

신청방법 _ 본회 홈페이지(www.kopogo.com)에서 접수

참가비 _ 120만원 (일체경비 포함)

선발발표 _ 2018년 6월 7일(목) 본회 홈페이지

선발자워크숍 _ 2018년 6월 29일(금) 백범기념관

기타 _ 세부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www.kopogo.com)참조
참가자 전원에게 답사 수료증 수여

주최 _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